

정답과 해설



6. 한국 문학의 이해	2
7.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	19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30
9.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38
10. 문학과 삶	47
● 학교 시험 대비 평가	60

6 | 한국 문학의 이해

(1) 가시리/진달래꽃

본문 실력 쌓기

본문 8~10쪽

01 ④ 02 ③ 03 ㉠, ㉡, ㉢ 04 ③

05 | 예시 답 | 시적 화자는 임이 아니 올라 두려워서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06 ① 07 ⑤ 08 ④ 09 | 예시 답 | ㉠의 표면적 의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이별의 슬픔을 참고 극복하겠다는 것이지만, 심층적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이별의 슬픔에 빠지겠다는 것이다.

01 이 시의 화자는 입을 붙잡지 못하고 임이 빨리 돌아와 주길 기원할 뿐이므로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여음과 후렴구를 제외하면 3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 ②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줄가 태평성디'가 반복된다.
- ③ 기승전결은 원래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시를 시작하는 부분, 앞부분을 이어받아 전개하는 부분, 전환하는 부분, 끝맺는 부분을 각각 기, 승, 전, 결이라 하는데, 〈가시리〉 또한 이러한 구성에 가깝다.
- ⑤ 각 연마다 "위 증줄가 태평성디"라는 후렴구가 있으며, 4연으로 이루어진 분연체이다.

02 임이 화자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03 이 시는 '원망에 찬 애원-애원(원망)의 고조-감정의 절제와 체념-소망과 기원'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4 ㉠은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로, 리듬감을 조성하고 구조상 통일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④ ㉠은 〈가시리〉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룩할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거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삽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제인 '이별의 정한'과 연결되지 않으며, 임에 대한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등과 같은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 ② 각 연마다 동일한 형태의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

05 3연의 "잡수와 두어리마는 / 선히면 아니 올세라"에 입을 붙잡으면 임이 아니 올까 두렵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즉, 임과 영영 헤어져 입을 다시 못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06 이 시는 "나 보기가 V역겨워 V / 가실 때에는 V", "말없이 V

고이 보내 V드리우리다 V"와 같이 3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수미상관'이란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시가에서 첫 연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 또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며 이루어진다. 이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도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반복되며 수미상관을 이룬다.
- ③ '각운'이란 '시가에서,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 또는 그 운.'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는 1, 2, 4연의 마지막 행 끝에 '-우리다'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각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여 향토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이 시는 전체적으로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지만, 각 연의 1행은 2음보, 2행은 1음보, 3행은 3음보로 이루어져 있어, 각 행마다 행을 읽는 호흡의 속도가 다르며 리듬에 변화가 생긴다.

07 '진달래꽃'은 4~5월에 피는 꽃이므로 '진달래꽃'이 봄의 계절감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희망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임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길을 축복하는 '산화공덕'과 유사하다.

08 이 시의 화자가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시적 화자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라고 하며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고 있다.

09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슬퍼할 만한 이별 상황인데도 시적 화자는 ㉠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한다.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을 표면적 의미로 해석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슬픔을 참고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매우 슬퍼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1 ④ 02 ② 03 ① 04 | 예시답 | 이별의 상황에서 (나)의 시적 화자는 입을 축복하지만, (다)의 시적 화자는 입을 저주하는 태도를 보인다. 05 ④ 06 ② 07 | 예시답 | 입과 이별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슬퍼할 것이다. 08 ②

01 (가)~(다)는 모두 이별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며, 입에 대한 사랑과 한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시를 끊어 읽는 단위가 세 마디씩 반복되는, 3음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의 태도를 자연물로 상징하여 표현하는 것은 (나)에만 나타나지는 특징이며, 이를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가)~(다) 모두 '나'라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이 또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가)~(다)는 모두 이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지만, 해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다.

02 (나)의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는 ‘즈려밟고’가 ‘힘을 주어 밟고’라는 뜻이라고 볼 때 ‘사뿐히’와 모순되므로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가)에는 이와 같은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각 연마다 “위 증즐가 대평성디”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영변의 약산’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는 부사어인 ‘아니’를 서술어인 ‘흘리우리다’ 앞에 두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도치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03 (가)에는 시적 화자가 입에게 이별의 이유를 들었는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④ (다)의 시적 화자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했는데, 이는 일종의 협박 또는 저주이다. 이 구절에서 입에 대한 원망을 느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주와 같은 과격한 방법을 써서라도 입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⑤ (가)의 시적 화자는 입을 붙잡으면 입이 화자를 서운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입을 보내면서 입이 서둘러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04 이별의 상황에서 (나)의 시적 화자는 입이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입을 축복한다. 그러나 (다)의 시적 화

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입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것이라고 하며 입을 저주하고 있다.

05 (가)의 경우, 후렴구를 제외하면 이별의 상황과 관련 깊은 내용만 남아 더 유기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여음 ‘나’를 반복적으로 삽입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③ (가)에서는 ‘가시리잇고’를 반복함으로써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06 <보기>의 화자와 (가)의 ‘님’이 동일 인물이라면, <보기>의 화자가 (가)의 화자를 떠나는 것은 ‘하늘’과 ‘땅’이 ‘구름’과 ‘바람’이 되라고 한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구름’과 ‘바람’은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의미한다. 또한 (가)의 내용으로 볼 때 함께 자고 권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③ <보기>의 ‘청룡’, ‘흑룡’은 높은 벼슬이 아니라, 먹구름, 또는 삶의 시련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붙잡으면 ‘님’이 서운해서 영영 떠날까 봐 ‘님’을 보낸다. 그러므로 (가)의 화자에게 자꾸 붙잡아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화자는 ‘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시상 전개상 ㉠의 ‘눈물’은 이별의 슬픔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픔을 참고 극복하겠다는 의미이지만, 반영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와는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매우 슬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8 (나)에는 처음과 끝이 유사하게 구성되면서 호응하는 수미상관이 나타나지만, <보기>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각 행이 모두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3음보 율격을 지니되, 각 연의 첫 번째 행이 2음보, 두 번째 행이 1음보, 세 번째 행이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나)는 입이 떠나기 전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보기>는 입이 떠난 후의 그리움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진달래꽃’, <보기>의 ‘뫼버들’은 모두 각 시에서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연물 소재이다.
- ⑤ <보기>에는 ‘날인가도 너기소서’와 같이 화자 자신을 떠올려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지만, (나)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상춘곡/울타리 밖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8~23쪽	
01 ②	02 ③	03 풍월주인(風月主人)	04 ②	05 ④
06 ③	07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08 ⑤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④
14 예시 답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풍류를 즐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15 ④ 16 ② 17 ①				
18 예시 답 시적 화자는 자연이 그러하듯 꾸밈이나 인위 없이 사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01 ‘홍진’과 ‘산림’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시적 공간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4음보 연속체인 ‘가사’이다.
- ③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와 같은 표현에 자연에 대한 감탄이 나타난다.
- ④ “이내 생애 엇더하고 ~ 미출가 못 미출가”는 의문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풍류가 뛰어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을 무를 것가” 또한 산림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읽을 수 있다.
- ⑤ ‘송죽’, ‘도화 행화’, ‘녹양 방초’, ‘우는 새’ 등을 통해 봄의 정경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02 화자는 ‘산림(㉠)’에서 소박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풍류를 옛 선인들과 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옛 선인들과 같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첫 구에서 ‘홍진에 못친 분네’라고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여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 ②, ④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을 무를 것가”를 통해 화자가 ‘산림(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알 수 있다.
- ⑤ ‘홍진’과 ‘산림’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홍진(紅 붉을 홍, 塵 먼지 진)’은 번거롭고 속된 세상(속세)을, ‘산림’은 자연을 의미한다.

03 ‘풍월주인(風月主人)’은 ‘맑은 바람과 맑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는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04 [A]에서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물아일체어니 흥이이 다룰소냐”는 자연과 하나가 되니 (수풀에서 우는 새의) 흥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여 나타낸 설의적 표현이다.

③, ⑤ 화자는 봄 흥취에 겨워 새가 우는 소리마다 교태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물아일체’라는 표현을 써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신도 그 흥을 느낀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흥을 새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새가 우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봄의 생명력과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

05 이 시의 화자는 적극적인 산중 생활을 하면서도 ‘한중진미(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를 느끼고 있으므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③의 ‘답청’은 ‘봄에 풀을 밟으며 산책함.’을 의미하므로 산책하는 장면의 촬영이 필요하다.
- ②, ⑤ ③에서 화자는 ‘곳 괴여 낙은 술’을 두건의 한 종류인 갈건으로 걸러 마시겠다고 하며 화창한 봄바람을 타고 온 ‘붉은 꽃잎’이 화자의 ‘옷’에 지는 것을 본다.
- ③ ②의 ‘소요음영’은 ‘이리저리 거닐며 나지막이 시를 읊조림.’이라는 뜻이므로 정자를 거닐며 시를 읊는 장면도 촬영이 필요하다.

06 ㉠은 ‘답청이란 오늘 하고’와 ‘육기란 내일 하새’가 짝을 이루고, ㉡은 ‘아춤에 채산하고’와 ‘나조히 조수하새’가 짝을 이룬다. 즉, ㉠, ㉡에는 공통적으로 대구법이 쓰였는데, ③에도 대구법이 쓰여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와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가 짝을 이룬다.

오답 풀이

- ① ‘내 마음’을 ‘같이’와 같은 연결어 없이 ‘호수’에 비유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②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렸다고 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④ ‘아니’를 ‘흘리우리다’ 앞이 아니라 ‘눈물’ 앞에 배치한 데서 도치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고,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반어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다.
- ⑤ 모닥불에 타는 소재를 여러 개 늘어놓는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07 ‘청향’과 ‘낙홍’이 화자의 술잔과 옷에 진다는 표현은 시적 화자와 자연이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나타낸다.

08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쓴 두건으로 술을 걸러 먹겠다고 하고,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는 등 예법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② 시적 화자는 술을 마시면서 꽃나무 가지를 놓고 잔 수를 세는 풍류를 즐기자 하며,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니는 등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가져다 권하고 있다.
- ④ 여기에서의 '무릉'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무릉도원' 즉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시적 화자가 도연명의 고사를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고사와 한문을 잘 아는 인물을 알 수 있다.

09 화자는 도화(복숭아꽃)를 보고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무릉'을 연상하지만, 이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복숭아꽃은 4~5월에 피는 꽃이므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
- ② '무릉도원은 중국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복숭아꽃이 핀 숲 끝에 갔다가 그 근처 굴속에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상향을 경험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러한 고사에 따라 시적 화자는 복숭아꽃을 본 다음 무릉을 떠올리고 있다.
- ③ 화자는 '도화'를 통해 자신이 즐기고 있는 자연이 무릉도원에 견줄 정도로 아름답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도화'의 붉은색과 '시냇물'의 푸른색이 대비되어 자연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0 봄의 경치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공간의 이동(초가집 → 시냇가 → 산봉우리)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1 ㉠은 객체인 '공명'과 '부귀'를 주체로, 주체인 화자를 객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이 부귀공명을 꺼리는 자세를 주객전도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연 속에서 살면서 공명, 부귀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12 ㉠에는 화자의 충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아모타V백년행락이V이만훈돌V엇지후리V"와 같이 4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 ② 시조의 종장은 3·5·4·3의 음수율을 지니며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는데, ㉠ 또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 ④, ⑤ ㉠은 의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 한평생 삶이 이만하면 괜찮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3 '백년행락'은 시적 화자가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공명'은 세속적 가치로서 시적 화자가 멀리하는 대상이므로 서로 대비된다.

오답 풀이

- ①, ⑤ '부귀', '공명'은 모두 세속적 가치이며, '훗튼 혜음'은 '부귀'와 '공명'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헛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시적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③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을 의미한다. '단표누향'은 누향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백년행락'은 화자가 시적 화자가 자연을 벗하며 소박하게 한평생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이들은 모두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14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려 한다는 주객전도식 표현을 통해 부귀공명을 멀리하는 자세를, '청풍명월'을 벗 삼아 '단표누향'에서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풍류를 즐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15 '마을'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직접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과 조화된 마을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그리움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듯', '그렇게', '마을이 있다'를 반복하며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 ② 마늘쪽, 아지랑이, 태양, 잔광, 별 등 다양한 소재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1연의 '같이'를 3행의 앞에 배치함으로써 '같이'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 ⑤ 2연은 1, 2행에서 3행으로 가면서 시행이 짧아지고, 3연은 시어 하나가 한 연을 구성한다. 그리고 4연에서 다시 시행이 길어진다. 이렇게 시행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시적 호흡에 변화를 주고 있다.

16 이 시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고향의 소녀와 소년, 마을의 모습을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므로 서정적이다.
- ④ 이 시는 고향을 소재로 하여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⑤ 자연과 조화를 이룬 마을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어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17 4연의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라는 구절로 보아, 이 시에 그려진 '인간'은 '안'과 '밖'에 대한 구분이 없이 천연하게 사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②, ③ ㉠은 1연에 나타난 고향의 소녀와 소년, 4연의 마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⑥은 1연의 들길, 2연의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화초', '잔광', '별'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④ 1, 2, 4연에 나타난 ㉠, ⑥은 공통적으로 꾸밈이 없다는 속성이 있다.
- ⑤ 4연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천연하게 사는 마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18 ‘천연히’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라는 뜻이다. 시적 화자는 고향의 사람들이나 자연이 그러하듯 천연하게 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26~28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②	
06 ㉠ 풍월주인(風月主人), ㉡ 단표누항(簞瓢陋巷)	07 ①	
08 예시 답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09 ③	10 예시 답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 '들길'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럽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1 ⑤
12 ②		
13 예시 답 화자는 고향의 마을과 자연에 대해 애정과 그리움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		

01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한 데서 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지만, 화자가 이를 풍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는 4음보 연속체의 가사 작품이다.
- ②, ③ 이 시는 산림에 묻혀 있는 시적 화자가 봄을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정경과 이에 대한 흥취, 화자의 생활을 소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자신의 풍류가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 만하고, 자신이 자연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누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02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로,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화자의 태도와 상반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물심일여(物心一如): 사물과 마음이 구분 없이 하나의 근본으로 통합됨.
- ② 안빈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
- ③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 ④ 유유자적(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03 “시냇 7의 호자 안자~잔 시어 부어 들고”를 통해 화자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화자는 봄의 경치를 보고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를 예찬하며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 ③ (다)에서 화자는 시냇물에 떠내려 오는 복숭아꽃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 ④ (다)에서 화자는 산병우리에 올라 봄 경치를 조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비단’에 비유하며 예찬하고 있다.
- ⑤ ㄱ에서 ㄷ으로 갈수록 화자는 봄날의 흥취를 더하면서 물아일체와 안분지족의 자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04 (다)에는 화자가 본격적으로 산수 구경을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다)뿐만 아니라 작품 어디에서도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난 이유나 현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는 ‘도화 행화’, ‘녹양 방초’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라)에서는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리지만, ‘청풍명월’과 ‘단표누항’이면 평생의 즐거움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안빈낙도의 자세를 표출하고 있다.

05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소박하게 사는 데 만족하고, 속세의 부귀영화와 멀리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 ‘홍진’과 ㉡ ‘공명’, ㉢ ‘부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 ‘산림’, ㉤ ‘산수’, ㉥ ‘무릉’, ㉦ ‘청풍명월’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호응하는 시어이다.

06 ‘풍월주인(風月主人)’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고, ‘단표누항(簞瓢陋巷)’은 ‘누추한 마을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07 (다)와 <보기> 모두 ‘봄’이라는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다)는 봄 경치에 대한 감탄과 흥취, 만족감이 주된 정서를 이루지만, <보기>는 부재하는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이 주된 정서를 이룬다.
- ③ (다)의 ‘화풍’은 화자의 잔과 옷에 맑은 향기와 붉은 꽃잎이 지게 하여 화자를 물아일체의 경지로 이끌고, <보기>의 ‘동풍’은 쌓인 눈을 녹여 봄이 왔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 ④ (다)에서 화자는 '도화'를 보고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미'가 무릉도원인가 하는데, 이는 현재 자신이 머물며 즐기고 있는 자연이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기>에서 화자는 창밖에 핀 '미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⑤ (다)의 '연하일회'는 수놓은 비단으로 비유되면서 봄을 맞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보기>의 '황혼의 돌'은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한 모습으로 화자의 베크머리에 비치면서 입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킨다.

08 ④는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냄.'이라는 말이며, 이 작품의 마지막 행은 한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마지막 행에 앞서 자연을 벗삼아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삶을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백년행락'은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09 이 시에서는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과 자연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보기>에서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절로' 살고자 한다. 즉, 두 작품 모두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3장 구성과 4음보 율격은 평시조의 특징이다.
- ② 이 시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 시에서는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의 '천연'하다는 속성을 '-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연결하여 비유하고 있다.
- ④ 이 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는 '천연히'만으로 3연을 구성하여 앞에서 제시한 소재들의 속성이 천연하며, 뒤에 제시되는 마을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천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⑤ 이 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는 고향 소녀의 머리 모양, 고향 소년의 알몸 모습, 아지랑이가 피고 태양이 타는 모습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천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르게 하였다.

10 '같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이'를 '처럼'으로 해석하는 경우 '소녀', '소년', '들길'이 낯설어도 사랑스럽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함께'로 해석하는 경우 '들길'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데, '소녀', '소년'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11 ㉠은 화자가 지향하는 속성이지만, ㉡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②, ③ ㉠은 앞과 뒤에서 묘사하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가지는 속성과 의미를 단적으로 제시하며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상을 집약하여 주제 의식을 함축한다.
- ④ ㉡은 세 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연으로, 시상의 호흡을 조절하며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12 '마늘쪽'과 '알몸'은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의 순박함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이것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 '소녀'와 '소년'은 화자의 고향과 함께 떠오르는 존재들로, 고향을 닮아 꾸밈없는 순박한 모습으로 그려지므로 토속적·향토적 정취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아지랑이', '제비', '물' 등은 특별한 자연의 이미지가 아니라 '고향'하면 떠오르는 여느 시골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④ '잔광이 부신 마을', '별이 뜨는 마을'은 천연하게 사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한 구절이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고향의 '소녀', '소년', '마을'을 소재로 택하고 이들의 천연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고향 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13 이 시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적 대상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화자의 태도에서 고향의 마을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그리움이 이 시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춘향전

본문 실력 쌓기		본문 31~38쪽	
01 ②	02 ⑤	03 ⑤	04 예시 답 변 사또의 화려한 생일 잔치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05 ④
06 ①	07 ②	08 예시 답 우선 실컷 먹고, 변 사또의 잘잘못은 나중에 가려 벌하겠다. 09 ① 10 ① 11 ③	
12 예시 답 동음이의어(음식' 또는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갈비')를 이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한다. 13 ⑤ 14 ④ 15 ④			
16 예시 답 ㉔은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17 ②			
18 예시 답 암행어사의 위세 19 ③ 20 예시 답 ㉔은 언어 도치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며, 변 사또가 공포에 질려 매우 당황하였음을 드러낸다. 21 ㉔ 암행어사 출도, ㉕ 봉고파직 22 ② 23 ⑤			
24 ④ 25 예시 답 ㉔은 본관 사또(변 사또)가 등장하여 춘향이 수청을 강요받고 시련을 당했던 상황을, ㉕은 어사가 된 이몽룡이 등장하여 춘향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26 ② 27 ③			
28 ③ 29 ② 30 예시 답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어사또(이몽룡)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승인)받았음을 의미한다.			

01 이 글은 조선 시대의 '숙종 즉위 초', '전라도 남원'이라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독자가 작품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2 춘향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신의 처지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춘향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03 '안분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의미하는데, 이와 연결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금지옥연(金枝玉葉)'은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이며, 퇴기 월매가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르는 내용과 연결된다.
- ② '천생연분(天生緣分)'은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이란 뜻으로, 이몽룡이 춘향과 첫눈에 반해 백년가약을 맺는 내용과 연결된다.
- ③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이란 뜻으로 변 사또의 가혹한 정치와 연결된다.
- ④ '폐포파립(敝袍破笠)'은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이몽룡의 걸인 행색과 연결된다.

04 <보기>에 따르면 암행어사는 지방 관리의 잘잘못,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런데 본관 사또는 화려하게 생일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어사또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뒷받침했을 백성들의 고통을 떠올리고, 변 사또가 못

마땅하여 마음이 심란한 것이다.

05 수령들이 어사또의 잔치 참석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③, ⑤ 사령에 말에 의하면 본관 사또는 걸인의 출입을 금하라고 명령했고, 사령은 이를 그대로 수행하여 스스로를 걸인이라고 밝힌 어사또를 내쫓으려고 했다.
- ② 운봉 영장은 어사또를 두고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잔치의 말석에라도 앉혀 적당히 대접할 것을 권했다.

06 ㉔은 변 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㉔도 입이 떠나시면 눈물을 흘리며 매우 슬퍼하겠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㉔과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② '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그네가 가는 모습을 달이 가는 모습에 직접 비유하였다(직유법).
- ③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여 '듯이'와 같은 표현 없이 암시적으로 비유하였다(은유법).
- ④ "해야 솟아라."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반복법).
- ⑤ 사람이 아닌 '풀'이 사람처럼 눕고 우는 것으로 표현하였다(의인법).

07 ㉔ 뒤의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라는 서술을 통해 본관 사또가 운봉 영장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㉔은 사전적으로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사또는 이제 막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 출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㉔은 우선 잔치 음식을 실컷 먹고 변 사또의 잘잘못은 나중에 어사출도를 한 뒤 가려서 벌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9 운봉 영장은 어사또의 언어유희를 받아 주며 예의를 갖춰 대한다. 그가 어사또를 홀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좌중 사람들이 다 짓기도 전에 순식간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어사또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운봉 영장이 시 짓기를 제안하는 것은, 어사또의 등장으로 어색해진 잔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 ④ 어사또는 초라한 다담상에 대한 불만을 상을 차 버리는 행동으로 드러낸다.
- ⑤ 어사또는 '좋은 잔치 당하셔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라고 말했다. 그런데 음식상을 받았을 때 불만을 표시했고, 한시에서 생일잔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므로, 이 말은 참뜻과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10 [A]는 잔치 현장의 사물을 백성들의 피, 기름 등에 비유하여 본관 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③, ⑤ 어사또는 탐관오리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이 몸에서 피와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시에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 ④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원망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금동이’와 ‘옥소반’은 각각 술과 안주가 담겨 잔치에서 쓰인 사물들로, 잔치의 화려함을 부각시킨다.

12 어사또는 자신에게 제공된 상차림에 불만을 가지고 상을 발로 찬 후, 운봉 영장의 갈빗대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말한다. 이는 ‘갈비’가 음식을 뜻하기도 하고 신체 일부를 뜻하기도 하는 동음이의어라는 점을 활용한 언어 유희이다.

13 어사 출도를 직감한 운봉 영장은 아전들을 불러 관청의 일들을 단속한다. 이를 본관 사또에게 숨긴 것은 어사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사의 출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춘향을 데려오라고 분부했으므로, 어사 출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춘향이 잔치 중에 수난을 겪을 수도 있었다.
- ② 어사또는 어사 출도를 앞두고 부하인 서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부하들이 어사 출도 준비를 한다.
- ③ 순식간에 어사또의 부하들이 남원읍에 우글우글하게 모인 것으로 보아 어사또의 부하들이 남원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운봉 영장과 달리 본관 사또는 어사또의 한시를 보고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14 [A]에서 본관 사또와 운봉 영장의 대화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인물 사이의 갈등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②, ⑤ 운봉 영장이 아전들을 단속하는 장면은 각 아전의 명칭과 그 아전이 담당하는 일이 열거되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장면은 열거와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서술 어미를 생략하여 빠른 호흡으로 서술되었다.
- ③ 본관 사또가 어사또의 한시를 읽고도 몰라본다든가 운봉 영장이

어사또의 한시를 읽고 놀라는 등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15 ㉠과 같이 운봉 영장은 어사또의 시를 읽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다. 또한 어사또가 떠난 후 암행어사 출도에 대비해 ㉡과 같이 관속들을 불러 관청의 일들을 단속한다. 이를 보면 운봉 영장은 비교적 눈치가 빠르고 준비성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6 어사 출도 전까지, 변 사또는 화려한 잔치를 즐겼고 어사또는 푸대접을 받았으며, 변 사또는 권력을 휘둘러 춘향을 옥에 가두었다. 그렇지만 어사 출도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된다.

17 4에서는 어사가 출도하자 아전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으로 서술함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18 ㉠은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며 초목금수도 떠나는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세가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9 [A]는 수령들이 암행어사 출도에 놀라 엉뚱한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묘사한 것이지,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재물을 챙기는 양반들의 행태를 풍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양반들은 도망을 치면서 자신이 소지하거나 담당해야 할 물건을 잃은 채 엉뚱한 물건을 들거나 쓰고, 오줌이나 똥을 누는 등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다.
- ④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각각의 양반들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챙겨 도망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도망치는 양반들의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으므로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던 당대 서민층이 통쾌함을 느꼈을 만한 장면이다.

20 ㉠은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표현을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위치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정도로 변 사또가 몹시 겁에 질리고 당황했음을 나타낸다.

21 어사또의 수행원들이 외치는 암행어사 출도 소리에 변 사또를 비롯한 고을 수령들과 아전들은 혼비백산하고, 변 사또는 결국 봉고파직을 당한다.

22 어사또가 변 사또의 학정을 바로잡기 위해 옥에 갇힌 죄인들을 불러냄으로써 춘향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므로, ㉠은 어사또와 춘향이 대화하는 데 개연성을 부여해 준다.

오답 풀이

- ① ㉠은 어사또가 본관 사또의 학정을 바로잡는 상황이다.
- ③, ④ ㉡은 어사또가 춘향을 시험하기 위해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부정하고 수청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춘향은 다시 실망과 분노, 절망과 서러움에 빠진다.
- ⑤ ㉢에는 어사또로서의 책임감이, ㉣에는 춘향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23 자신이 최후를 맞는 상황에 서방님(이몽룡)이 곁에 있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춘향의 원망과 아쉬움은 나타나지만, 자신을 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춘향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며 어서 빨리 죽어 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해 놓은 이몽룡을 찾는다. 이 부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는 방어적 표현으로, 본관 사또와 어사또 모두 명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24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죽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5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5에서는 오히려 춘향의 굳센 의지가 부각된다.

오답 풀이

- ①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사랑과 연결된다.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죽음을 앞두고 이몽룡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춘향의 모습과 연결된다.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시련을 겪으며 지조와 절개를 지킨 끝에 기쁨을 누리는 춘향의 상황과 연결된다.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이몽룡이 어사 출도를 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난 춘향의 상황과 연결된다.

25 이 작품에서 춘향은 수청 요구 때문에 시련을 당했으므로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은 본관 사또에게 수청을 강요받아 시련을 당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화춘풍(李花春風)’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오얏꽃(자두나무 꽃)이 피는 봄바람’이지만 이몽룡의 성씨인 ‘이(李)’와 연결되므로, 이화춘풍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은 어사가 된 이

몽룡의 등장으로 춘향이 위기를 극복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6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했던 것은 지배층의 폭정 때문이 아니라,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⑤ <보기>에서 ㉢는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를, ㉣는 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한 서사 구조이다.
- ③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기 전에 한창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변 사또가 등장하기 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의 ‘사랑’과 ㉣의 ‘폭정’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이 글은 주로 폭정을 하는 지배층(양반)을 풍자하고 있는데, 특히 변 사또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진다.

27 ㉠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의문의 형식으로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어 좋다는 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집자적 논평’이 두드러진다.

28 “다시 보기 기약 없네.”라는 표현에서 남원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④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당나라 시인 왕유의 한시이다. 춘향은 이 시를 인용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모습과 달리 자신은 고향인 남원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 ②, ⑤ ‘놀고 자던 부용당’이라는 한 데서 춘향이 추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부용당’을 비롯해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을 부르며 잘 있으라고 하는 데서 고향에 대한 춘향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29 이 글의 결말에는 이몽룡과 춘향이 함께 남원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간 뒤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로 한평생을 함께하며 즐겁게 살았고, 그 후손에게 대대로 일품 관직이 이어졌다는 내용은 있어도 인물의 생애가 천상계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⑤ 춘향과 이몽룡이 남원을 떠난 이후에는, 춘향과 이몽룡의 일생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의 일을 서술자가 짧게 제시해 주고 있다.

30 변 사또는 기생의 딸인 춘향의 정절을 인정하지 않고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였지만, 결말에서 춘향은 임금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이 칭호는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것이었으므로 춘향의 정절에 대한 인정이자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1 ⑤ 02 ④ 03 | 예시답 | ㉠, ㉡에는 모두 참뜻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법이 쓰였다. 04 ④ 05 ③ 06 ③ 07 ③
 08 “암행어사 출도야.” 09 ③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 예시답 | ㉢ 부패한 권력자를 징벌한다. ㉣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

01 제시된 부분에서는 반어와 언어유희, 희화화 등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면서 부정한 세력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일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앞부분 줄거리’ 가운데 이몽룡이 농부들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듣게 된다는 내용은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적 사건 전개를 보여 준다.
- ② 이 글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어사또나 운봉 영장의 속 마음까지 서술하고 있다.
- ③ 어사또가 지은 한시, 그리고 이 시를 서술자가 풀이한 한역시를 삽입하여 문체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④ ‘숙종 즉위 초’, ‘전라도 남원’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02 사령은 걸인을 금하라는 본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이몽룡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라고 하며 이몽룡의 사정을 듣지도 않고 잔치 참석을 막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03 ㉠에서는 걸인을 금하게 한 본관 사또를 ‘명관’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에서는 탐관오리의 화려한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로 표현하고, 초라한 다담상을 걸어챘으면서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맥락상 ㉠, ㉡ 모두 참뜻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04 [A]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대한 백성의 고난과 분노를 은유의 방법으로 표출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해소하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오답 풀이

- ① 임금이 아니라 고을 수령의 학정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푸대접받은 것과 관련하여 어사또가 통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A]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 ⑤ [A]에서는 본관 사또와 같은 탐관오리가 비판 대상이지만,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05 <보기>에서는 양반들과 말뚝이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곳곳

리장단에 춤을 추면서 해소되므로 음악과 춤을 통해 상황이 정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이 이 글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어사또가 한시를 짓고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본관 사또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 <보기>에서는 실컷 조롱을 당하고도 말뚝이가 둘러댄 말에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
- ② 이 글은 “갈비 한 대 먹고지고.”라는 구절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보기>는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라는 구절에서 유사한 음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④, ⑤ 이 글에서는 서민층인 춘향이 양반층인 본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보기>에서는 서민층인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며 갈등이 빚어진다.

06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문체와 함께 운문체가 나타난다. 또한 서민층뿐만 아니라 양반층에게도 향유되었기 때문에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한다. 편집자적 논평,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기도 한다.

07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 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라는 구절은 암행어사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혔다거나 나무와 풀, 짐승과 새가 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운봉 영장이 일이 났다고 하며 아전들에게 여러 가지를 단속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서 나온 어사또가 바로 부하들과 연락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모습에서, 어사또의 부하들이 이미 남원 고을에 들어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어사또의 부하들이 출도를 준비하는 과정은 빠른 호흡의 확장적 문체로 서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소리와 함께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며, 부정한 수령과 아전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

09 ㉢은 어사의 출도로 남원 고을 아전들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공방이 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당대에 아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④ '대감(부친)이 직무를 수행하던 곳에서 소란이 있지 않도록 객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에서 부친을 존중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10 [A]는 본관 사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바꿔서 말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공포감에 빠져 매우 당황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A]에서는 공포에 질린 본관 사또가 똥을 싸면서 도망치고 이치에 맞지 않게 말하는 등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관 사또의 권위가 추락하여 골계미가 형성되며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11 <보기>의 '나'는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챘지만, 자신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자신과 장인님의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울분을 참지 못해 장인님의 수염을 찢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했지만,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여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다.
 ⑤ 이 글의 변 사또는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보기>의 '나'는 근본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심심 사나운 장인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12 어사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전후로 하여, 춘향이 강인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기뻐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걸인 행색을 했던 이몽룡이 어사 출도를 하여 춘향과 만나는 장면이므로,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준비하여 걸인 행색을 하고 있을 때와 대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글은 판소리계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서술자의 말을 판소리 사실 투의 내레이션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④ 임금의 칭찬은 춘향을 '정렬부인'에 봉함으로써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임금의 칭찬 내용이 구체적인 대사로 추가되면 주제 의식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⑤ 이 글에 따르면 얼굴을 들어 자신을 보려는 어사또의 분부가 있기까지 춘향은 어사또의 정체를 알 수 없어야 하므로 인물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한다.

13 '가을'은 본관 사또(변 사또)의 수청 요구를 비유한 표현이다. 이를 거부한 춘향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어사또가 된

이몽룡을 만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답 풀이

⑤ 말 그대로라면 '이화춘풍(李花春風)'은 '오얏꽃(자두나무 꽃) 피는 봄바람'을 의미하지만, 어사또(이몽룡)의 성씨 '이(李)'와 연결되므로 어사또(이몽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4 ㉠: <도미의 아내>에서 남자 주인공 도미는 부패한 권력자인 왕에 의해 눈이 멀고 버려진다. 반면에 <춘향전>에서는 남자 주인공 이몽룡이 부패한 권력자인 변 사또를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처벌한다.

㉡: <도미의 아내>에서 남녀 주인공은 결국 왕과 사회로부터 도피한 후에야 재회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정렬부인에 봉해지면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

- 01 ④ 02 ⑤ 03 ③ 04 | 예시답 |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표출하면서 재회를 소망하지만, (나)의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면서 묵묵히 참고 따르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05 ④
 06 ① 07 ④ 08 ③ 09 | 예시답 | 시적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난다.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 예시답 | 운봉 영장은 ㉠으로 보아 관대한 성품을 지녔으며(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다르며), ㉡으로 보아 눈치가 빠르다. 15 ⑤ 16 ④ 17 | 예시답 | ㉢은 언어 도치를 사용하여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18 ③ 19 ③ 20 ⑤ 21 | 예시답 | ㉣: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변치 않는 사랑 ㉤: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와 승리

01 (나)의 1연과 4연은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우리가”가 반복되며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나)의 주제 의식이 강조되고 형태적 안정감이 확보된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의태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만 '나란'이라는 여음과 '위 증증가 대평성디'라는 후렴구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나)에서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각 연을 같은 수의 행으로 구성하였다.

02 ㉢ ‘말없이’는 이별에 대한 화자의 순종적 수용의 자세를 드러내는 시어이다. 화자가 시상 전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임에 대한 축복, 자기희생, 인고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을 임과의 이별에 화자가 충격을 받아 말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나)의 ‘진달래꽃’에서 붉은색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다른 색을 떠올릴 만한 시어가 없기 때문에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시적 화자는 임에게 ‘진달래꽃’을 뿌릴 테니 걸음마다 밟고 가라고 한다. 이것은 임에 대한 축복의 자세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임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헌신적 사랑을 드러낸다.
- ⑤ ‘진달래꽃’은 ‘영변의 약산’이라는 실제 지명과 연결되면서 향토적 느낌을 준다.

04 (출제 의도 및 해설) 이별의 상황에 대한 두 시 화자의 대응 방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가)의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안타까움과 원망감을 드러내면서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직접

적으로 드러낸다. 반면에 (나)의 화자는 임이 이별을 원할 경우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임을 축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한 이별의 괴로움을 인내하고 임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헌신적 사랑의 자세를 나타낸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가)와 (나)의 이별에 대응하는 자세를 적절하게 비교한 경우	4점
(가)의 정서 표출, 재회의 소망과 (나)의 수용과 헌신의 자세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2점

05 (나)는 전체적으로 3마디씩 끊어 읽기가 반복되며 3음보 율격을 지닌다. 그렇지만 각 연의 1행은 2마디, 2행은 1마디, 3행은 3마디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보기>는 모든 행을 4마디씩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06 (가)의 시적 화자는 초가집 밖으로 나가 시냇가와 산봉우리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나)에도 여러 공간이 나타나지만 화자가 이 공간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에서는 시어 ‘천연히’를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한다.
- ③, ④ 모두 (가)에 대한 설명이다.
- ⑤ (가), (나) 모두 화자의 뚜렷한 정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7 (가)는 봄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을, (나)는 고향 마을과 마을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ㄷ). 또한 (가)에서는 시적 화자와 자연이, (나)에서는 고향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나타나므로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ㄴ, ㄹ).

오답 풀이

- ㄱ. (가)에서만 자연에 해당하는 ‘산림’과 인간들의 공간인 ‘홍진’을 대비하고 있다.
- ㄴ. (가)에서만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새’에 이입해 새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08 ㉢은 ‘청풍명월 말고 어떤 벗이 있겠는가’라는 의미로, 청풍명월을 벗 삼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화자의 만족감을 보여 준다. 그래서 산속 생활의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은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여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체와 객체를 전도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④ ‘같이’를 2행의 끝이 아니라 3행의 처음에 배치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 ⑤ 안과 밖의 경계인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행위를 제시하여 천연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나머지 시구와 연결되며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09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적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적절한 표현을 시어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B]에서는 ‘청향’이 화자가 마실 잔에 지고 ‘낙홍’이 화자가 입은 옷에 진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와 자연이 동화된 상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태는 [A]의 시구 가운데 ‘물아일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물아일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그 의미도 적절하게 밝힌 경우	4점
‘물아일체’라는 표현만을 활용하거나 ‘물아일체’에 해당하는 의미만을 밝힌 경우	2점

10 <보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할 뿐, 자신의 처지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안분지족의 자세를 드러낸다. 그러나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냄으로써 이러한 상태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경우 마을 사람이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데서, <보기>는 시적 화자가 한가롭게 생활하며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데서 정신적인 넉넉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는 3연의 ‘천연히’가, <보기>는 ‘강촌은 일마다 그윽하다.’가 시적 분위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⑤ (나)는 화자가 떠난 ‘고향’의 모습을, <보기>는 화자가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생활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11 어사또가 지은 한시는 탐관오리가 가렴주구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봉 영장은 이 한시를 듣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관속들을 단속하며, 이후에 어사또가 탐관오리를 징벌하므로 한시를 통해 사건의 의외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운봉 영장이 아전들을 불러 관아의 사무를 단속하는 장면은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묘사되었고 깊은 인상을 남긴다.

- ② ‘어찌 아니 명관인가.’, ‘어찌 아니 통분하라.’와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찌 아니 명관인가.’,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 포식하고’는 모두 본관 사또를 반어적으로 비판한 표현이다.
- ⑤ 운봉 영장은 어사또를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하자고 권하지만 본관 사또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리고 운봉 영장은 어사또의 시를 읽고 어사 출도를 예감하지만 본관 사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또한 어사또는 다른 사람들이 시를 짓기 전에 두 구절의 시를 완성한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다른 인물과 대비시켜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12 [A]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갈비’와 음식을 가리키는 ‘갈비’, 즉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표현이다. ②도 동음이의어 ‘유(儒: 선비)’와 ‘유(諛: 아첨)’를 활용하여 언어유희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 ③ 유사한 음의 반복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 ④ 발음이 유사한 소재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 ⑤ 동음 반복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13 <보기>에는 백성들의 노력과 고통의 결실이 탐관오리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빼앗기는 현실이 나타난다. 즉, [B]의 ‘천인혈’과 ‘만성고’가 ‘금준미주’와 ‘옥반가효’로 변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④에는 이 과정이 반대로 제시되어 있다.

14 **출제 의도 및 해설**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본관 사또는 걸인 행색을 한 이몽룡의 잔치 참석을 못마땅해하는데, 운봉 영장은 이몽룡이 양반의 후예일 것이라 짐작하고 이몽룡을 잔치에 참석시키도록 권하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다르며 비교적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사또가 비유적으로 쓴 한시를 보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눈치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에서 관대하다는 것(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것), ㉡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모두 파악해 낸 경우	4점
㉠과 ㉡ 둘 중 하나에 관련된 특성만을 서술한 경우	2점

15 춘향이 “향단야,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라고 말한 것은 향단이 어사또(이몽룡)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춘향보다 향단의 상황이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춘향은 죽음을 맞을 위기에서 사랑하는 입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몽룡을 찾는 것이다.

- 16 <보기>는 편집자적 논평에 관한 설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과 ㉡이다.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에는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고 초목금수도 편다는 서술자의 의견이 드러나 있다. ㉡에도 춘향 어머니가 끝이 없이 하는 말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서술자의 의견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 ㉢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일반적인 서술로서, 서술자의 의견이나 평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 17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의 표현이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은 언어 도치가 사용된 표현으로, 제 위치에 놓이지 않은 단어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 웃음을 유발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설명한 경우	4점
㉡가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의 명칭만을 썼거나, 그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단어만을 쓴 경우	2점

- 18 ㉠은 춘향이 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춘향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절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열녀 설화(㉠)와 관련이 깊고,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은 춘향을 관리인 변 사또가 빼앗으려 한다는 점에서 관탈 민녀 설화(㉡)와 관련이 깊다.

- 19 <보기>에서는 조조가 말을 거꾸로 탄 것을 정욱이 지적해 주지만, [A]에는 정욱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⑤ [A]의 변 사또와 <보기>의 조조는 모두 자신을 해할 만한 사람을 피해 도망을 치면서 공포에 질려 있다. 이 때문에 언어 도치를 해서 변 사또는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조조는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요강 마렵다 오줌 들어라.”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④ [A]와 <보기> 모두 양반층의 한문 표현과 서민층의 일상어(똥, 오줌, 애고 나 죽네, 말모가지 등)가 함께 쓰이고 있다.

- 20 [B]에서 춘향은 자신의 정절을 ‘충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 녹죽 푸른 나무’와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몽룡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

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또한 죽어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각오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고려 후기 신돈의 횡포를 풍자한 작품이다. 간신(‘구름’)이 임금의 선정(‘광명한 날빛’)을 덮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② 고려 후기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조선 건국 세력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고 군자로서의 도리와 절개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읊은 시조이다.
 ③ 작가인 이색이 기울어 가는 고려의 국운을 보면서 고려의 충신으로서 안타까움을 담아 읊은 시조이다.
 ④ 고려가 멸망한 후, 옛 도읍지였던 개성을 돌아보고 느낀 흥망성쇠와 인생무상에 대한 인식을 읊은 시조이다.

- 21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서사 구조에 따라 다른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은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에 주목했을 때의 주제로, 신분이 낮은 춘향이 절개를 지킨 끝에 신분이 높은 이몽룡과 사랑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은 춘향과 변 사또의 관계에 주목했을 때의 주제로,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춘향에게 지배 계층인 변 사또가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끝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과 ㉡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수능 맛 보기						본문 55~62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②	09 ④	10 ④	11 ③	12 ⑤	

자료 더하기 

<동동> 현대어 풀이

덕은 뒤에(신령님께) 바치우고 복은 앞에(임에게)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서사>

정월 냇물은 아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정월령>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이월령>

3월 지나며 핀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또는 오얏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삼월령>

01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고려 가요의 대표적 특징인 후렴 구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지만 해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제외한 <서사>의 나머지 부분은 덕과 복을 바치며 송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후렴구인 “아으 동동다리”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마다 나오며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다)의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지는 구절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을 뿐 송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02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장면으로, 대상의 변화도 없고 대칭 구조도 아니다. 또한 (다)의 제1연과 제2연 역시 떠나려는 임에 대한 슬픔이 드러난 부분으로,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4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는 [A]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나)의 <정월령>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라고 했으므로, ①과 같은 감상이 가능하다.
- ② [A]의 맥락상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을 나타내며, (나)의 ‘만춘 돌잇꽃’은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였으므로 둘 다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한 쌍과 앞으로 짝을 지을 군자와 요조숙녀의 모습을 통해 화락(화평하고 즐거움)의 상황을 보여 주고, (다)에서는 시적 화자를 떠나려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에서는 4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이월령>의 ‘노피 현 등(燈)사불’은 훌륭한 덕을 갖춘 임의 모습에 대한 비유이다. 또한 (다)에서는 사랑하는 ‘남’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프고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로 보아 ⑤와 같은 감상도 가능하다.

03 (가)는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나)는 “이 몸이 이 청홍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연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는 ‘도화 행화(복숭아꽃과 살구꽃)’의 붉은색과 ‘녹양방초(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의 푸른색이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에서는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 ③ (나)의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라는 구절은 봄에 부는 동풍 때문에 눈이 녹고 산이 푸르게 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므로, 감각적 이미지 가운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에서는 계절감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나)의 “어와 저 백구(白鷗)야 ~ 잠만 들면 어머리.”를 당대의 정치 상황과 연결 지으면, 권력에 욕심을 부리는 정치인을 풍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와 (다)에서는 풍자적 표현을 찾기 어렵다.
- ⑤ (가)의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와 (나)의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라는 구절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만, (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04 ㉠은 소유하지 않고도 대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은 백구가 고기를 탐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군마음’이라고 평가했으므로 ㉠과 거리가 멀다. ㉢은 당대에 속된 정치인이 권력을 탐하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 (가)의 ㉠은 시적 화자가 자연에 묻혀 살며 지극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의미이고, ㉡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봄의 흥취를 느낀다는 의미이다. 또한 (나)의 ㉢은 자연을 벗하며 느끼는 맑은 흥

때문에 재력과 권력을 지닌 만호후가 부럽지 않다는 의미이며, ㉠은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니 무척 시원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 ㉡, ㉢, ㉣은 모두 소유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의 관점과 밀접하다.

05 [A]에서는 새봄을 맞이한 시적 화자가 자연 경치에 감탄하며 봄의 흥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B]에서는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서 옛 모습을 찾은 청산과 봄이 되어도 귀밀의 해묵은 서리, 즉 흰머리가 없어지지 않은 시적 화자가 대비되며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 ① [A]에는 봄 경치의 아름다움과 봄에 느끼는 흥겨움만이 나타나므로 인간의 유한성과는 관련이 없다. [B]에는 옛 모습이 돌아오는 청산과 옛 모습을 찾지 못하는 시적 화자가 대비되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과 연관 지을 만한 여지가 있다.
- ② [A]와 [B]에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긴 하지만 봄에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B]의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시적 화자의 흰머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B]에서 의인화를 확인할 수 없다.
- ⑤ [A]와 [B] 모두 근경과 원경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06 (가)에서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와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 천연히 //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고향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서로 호응하므로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서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 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으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어둠과 밝음의 대조가 나타나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에는 ‘내 호올로’와 같이 ‘나’라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07 ‘어둠’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이라고 수식함으로써 촉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했으므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

다. 그러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나타낼 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과는 관련짓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비인 하늘’이라는 적막한 배경에 걸려 있는 ‘차단—한 등불 하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화자로 하여금 ‘떠남’을 알리는 ‘슬픈 신호’로, 뒤에 이어지는 ‘내 호올로’와 함께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길—게 늘인 그림자’에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이라는 다양한 소재를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나열함으로써 소재들의 ‘천연’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3연은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로 연을 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천연함’, 즉 대상의 생김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08 (가)는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천연’한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와 같은 시구,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과 같은 시구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회화적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문명과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 주는 대상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는 ‘슬픈’, ‘낯설은’, ‘무거운 비에’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 상실감, 중압감 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나)는 ‘마늘썩’,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서 시적 화자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9 춘향은 진시황이나 항우와 관련한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이별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싶다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표출했을 뿐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도련님은 춘향과 이별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아무튼 잘 있거라'라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승진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이별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춘향은 처음 만날 때의 일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춘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 같은 이별의 상황을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춘향은 '죽은 후에 닢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에서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춘향의 마음을 자연물인 제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에서 춘향이 천상의 존재인 옥황상제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별에 대한 억울함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춘향의 송사는 도련님이 약속을 어기고 이별을 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일 것이므로 춘향이 패소한 ㉠의 내용은 도련님에게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일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 '명문'은 도련님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호리려고 써 준 것이다.
- ② ㉡ '소지'는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기 위해 춘향이 지으려는 것이므로 춘향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 ③ ㉢ '편지 한 장'은 춘향이 순사또에게 '소장'을 올리면 도련님이 쓸 것이라 예상되는 것으로, 편지를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춘향에 대한 친밀감이 아니라 송사에서 춘향이 패하게 해 달라는 청탁이 담겨 있을 것이다.
- ⑤ 춘향은 순사또에게 올린 송사와 이후 형조, 한성부, 비변사까지 올린 송사에 모두 진 뒤 ㉠ '상언'에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11 (나)에서 춘향은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을 뿐,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도련님에게 자신을 두고 가지는 못하리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춘향은 도련님이 떠나면 송사를 할 것이지만, 순사또, 형조, 한성부, 비변사는 모두 양반이라 도련님 편을 들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민중들의 양반 계층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으므로, 춘향이 민중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춘향은 송사에서 계속 지면,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

씩 빌어 얻어서 종이를 사 임금에게 '상언'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춘향은 자길 두고는 가지 못한다며 하소연하다가 그래도 도련님이 떠나려 하자 '할 수 없이', '주안을 갖추어 놓고',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라며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천하장사 항우에게 철퇴를 주어 이별이라는 글자를 깨치고 싶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이별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 [B]의 "이별이라네 ~ 눈물짓고 하는 말이"는 해설자, "도련님 ~ 못 가시리다"는 춘향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장면만을 담고 있으므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는 이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생눈 나올 일'이라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세책업자가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고자 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A]에서는 춘향이 '살자 하였소?', '잊어 계시오?', '아니하였소?'와 같이 질문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세책업자가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 ③ [B]에서는 첫 행에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라고 하여 이 도령과 춘향의 이별이라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했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④ [B]에서는 '두고는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이별을 거부하는 춘향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라는 설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7 | 생각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

(1) 창의적 읽기

본문 실력 쌓기		본문 66~70쪽
01 ⑤	02 ④	03 실업 문제(일자리 문제)
04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사회적
10 ④	11 ④	12 ①
13 ②	14 예시 답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15 ④
16 ④	17 ⑤	18 ①

01 ①에는 인공 지능이나 로봇과 관련된 개념들(기계 학습, 인공 지능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개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할 동력 기계의 출현은 '제1의 기계 시대'라 일컫는 18세기 산업 사회의 주요 특징이다.

03 글쓴이는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가 변하면서 인간이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4 ①의 2문단에서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05 이 글에서는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의 뒷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말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도 로봇과의 경쟁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④ 농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지식 기반 업무와 전문적인 영역의 직종까지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업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06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유수의 언론 기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

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 내고 있다고 하였다.

07 ①은 단순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업의 일을 로봇이 대체한 예이다. 이는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나 서비스업 가운데 전문성이 높은 영역을 대체한 것이 아니므로 ㉠의 예와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약사가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예이다.

자료 더하기

전문 직종에 인공 지능 로봇이 활용되는 예

- 기사 작성 로봇(로봇 저널리즘)
 - 우리나라의 증권 기사 로봇 'InRASS', 프로 야구 뉴스 로봇 '@k_baseball_bot'
 - 미국의 지진 기사 로봇 '퀘이크봇(Quakebot)', 스포츠 기사 로봇 '스탯몽키'
-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 IBM 사의 의료 인공 지능 '왓슨'
- 미국의 인공 지능 기반의 문서 검토 및 증거 조사 소프트웨어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 미국은 자율 항공기 개발을 위한 'ALIA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미 간단한 세금 보고, 회계는 로봇이 대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감사 분야까지 로봇이 활용될 전망이다.

08 글쓴이는 전문 분야의 일자리까지 로봇이 대체하는 상황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9 ③의 1문단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관점이 나타나 있다.

10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로봇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가치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일을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로봇 문명 낙관자들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을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를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로봇 시대를 낙관한다.

⑤ 로봇 문명 낙관자들은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져 사회 전체적인 부가 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 소득의 도입, 사회 복지의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여긴다.

11 글쓴이는 ‘일’의 가치를 물질적 측면에서보다는 정신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또한 기본 소득, 사회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더라도 단지 안락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④는 글쓴이의 견해와 거리가 멀다.

12 앞 문단에서 노동의 가치를 언급한 후,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에는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13 글쓴이는 로봇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는 현실 상황과 직업에 대한 개인의 생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로봇 시대를 맞이하며 개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와 노력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④, ⑤ 글쓴이는 변화된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껏 사람이 해 오던 직무를 로봇에게 맡기고 새로운 과업과 가치를 발견하고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로봇과 같은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거나(③, ⑤) 로봇을 배제하지는(④) 내용은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없다.

14 ㉠의 첫 문장에서 로봇 시대에 일어날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 형식으로 제기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 ④는 의료 분야에서 미세 수술에 능한 수술용 로봇을 활용한 것으로,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사례에 해당한다.

16 글쓴이는 로봇 시대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과 인

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인한 체력을 필수 요소로 꼽지는 않았다.

17 글쓴이는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미래의 직업 세계가 불안 요소가 가득하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② 글쓴이는 평생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유연성을 꼽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앞으로는 이제껏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음에 유념하라고 하였다.
- ④ 글쓴이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8 글쓴이는 로봇 시대에는 평생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유연성과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①은 적절한 질문으로 볼 수 없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73~76쪽

01 ④ **02** ③ **03** | 예시답 |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04** ① **05** ② **06** ③ **07** | 예시답 | ㉠은 일이 갖는 정신적 가치를 간과한 채 실업 문제를 기본 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08** ③ **0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 예시답 | 뒷글의 글쓴이는 로봇에 의해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한 반면에, <보기>의 글쓴이는 ‘강한 인공 지능’의 출현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01 인공 지능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이는 예를 들어 제2의 기계 시대를 맞아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2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식 기반 업무,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업까지 넘보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다)의 두 번째 문장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넘어서서 ~ 고도

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가)의 세 번째 문장 ‘제1의 기계 시대에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을 통해 발명 초기부터 기계가 지적인 업무를 대체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두 번째 문장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 혁명 ~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 시대’를 만들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라)에 미숙련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타나 있다.

03 글쓴이는 자율 주행 차, 각종 인공 지능 로봇, 드론 등의 예를 들면서 제2의 기계 시대에는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의 개발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4 (나)에서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알파고’ 역시 기계 학습으로 훈련한 인공 지능이므로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바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④, ⑤ ‘알파고’는 기계 학습의 일종인 ‘딥 러닝’으로 훈련한 인공 지능이므로 단순히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거나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바둑을 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인지적 판단을 통해 바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예전과 같이 재교육으로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05 (가)는 ‘퀘이크봇’과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고, (나)와 (다)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우려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전문가들의 일을 로봇이나 자동화 프로그램과 같은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변화해 가는 현재 상황을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미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우려를, (다)는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는 ‘퀘이크봇’과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나)와

(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특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나)와 (다)에서는 로봇 시대에 대한 비관적 입장과 전망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6 ①은 ‘퀘이크봇’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에 의해 작성된 기사가 실제로 보도된 예로,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다. 이 사례는 지진 발생 보도와 같은 사실 전달 기사의 경우, 기사 작성과 보도의 신속성 면에서 로봇이 인간을 능가하여 인간보다 경쟁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②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실제로 보도가 되었다는 점과 기사 작성 로봇이 유수의 언론 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로봇이 쓴 기사가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기사 문으로서 형식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 ④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보도를 한 것이지,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측하여 기사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 ⑤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의 기사가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 내고 있다고 했으나, ①의 기사를 쓴 ‘퀘이크봇’이 국내의 기사 작성 로봇은 아니다.

07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역소득세나 기본 소득 도입, 사회 복지 확대 등의 재분배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들은 글쓴이가 언급하고 있는 자존감 향상이나 정체성 유지와 같은 노동의 가치를 간과한 채 금전적 수단으로만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실업 문제가 단지 금전적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이들의 단편적 시각을 반영한다.

08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이미 로봇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주력 산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한 데서 4차 산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첫 문장 “변화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를 통해 제조업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09 변화하는 사회상을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는 있으나 유추(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자신의 영역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첫 문단에서 “직업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③, ⑤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 세 가지를 나열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0 ㉔를 통해 로봇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주요 업무의 방향은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글쓴이는 미래에 로봇에 의해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으며 평생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2 글쓴이는 로봇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주요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므로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가 될 수 있도록 덕성을 갖추라고 한 것이지, 업무 능력보다 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모든 일이 자동화된다는 것은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이 글은 로봇 시대의 도래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대한 개인적 태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사회 구조적 측면의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최신 기술을 익히는 데에 걸린 시간보다 기술이 변화하는 시간이 더 짧으면 최신 기술을 익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기도 전에 사회가 변화할 수도 있다.

13 윗글과 <보기> 모두 로봇 시대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인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윗글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는 ‘강한 인공 지능’의 출현에 의해 인류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2) 자발적으로 책 읽기

본문 실력 쌓기				본문 78~79쪽
01 ①	02 ①	03 ⑤	04 문학 수업(문학에 대한 관심)	
05 ②	06 ③	07 ②	08 예시 답 운동주에 대한 정보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1 이 글에서 운동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이 글에서 동생들은 운동주의 독서 습관에 대한 일화를 증언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글을 통해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④ 중학 시절에 서가에 꽂혀 있던 책들이 대부분 시집이었다는 점과 백석의 시집을 필사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03 운동주가 ㉑을 만든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책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석의 시집 《사슴》이 200부 한정판으로 출간되어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04 운동주는 중학생 당시 문학 수업과 상급 학교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문학 작품을 필사하고, 안감을 대라고 준 돈까지 책을 사는 데 쓰며, 새벽까지 독서에 몰두하는 등 문학 수업에 열중한 모습이 주로 나타나 있다.

05 운동주는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주로 읽었는데, 자신의 관심사이자 목표인 문학 수업을 위한 것이지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6 윤일주 교수가 작성한 ‘운동주의 연보’의 내용을 통해 운동주가 새벽까지 세계와 한국의 문학 작품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07 ㉔는 운동주 혼자에게 속한 문제이지만, ㉑는 가족들과 연관된 일이자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였다.

08 당시 운동주와 함께 살며 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가족들의 증언은 글에 제시된 운동주와 관련된 정보의 사실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 예시답 | 운동주는 광명중학 재학 시절에 문학 분야의 책을 탐독하였는데, 이러한 독서 경험은 상급 학교 진학과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06 ②

07 ④ 08 | 예시답 | 책의 주요 내용, 인상 깊은 문장과 그 까닭,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 책에 대한 평가 등

01 백석의 시집을 직접 필사한 일이나 독서와 관련된 구체적 일화를 보여 줌으로써 운동주가 문학에 대해 매우 큰 관심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운동주의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② 이 글에서 운동주의 모습은 주로 가족이 증언하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 있다. 글쓴이가 운동주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여 묘사한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④ 관련 일화를 통해 운동주의 독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나 이를 강조하는 극적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실존 인물인 운동주에 대한 평전으로,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니다.

02 ②는 운동주의 또 다른 목표인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된 행동이고, 나머지는 문학 수업을 위한 운동주의 자발적 독서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03 ㉠에서 운동주는 새벽 2~3시가 되도록 독서에 열중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있는 한자 성어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을 뜻하는 ‘수불석권(手不釋卷)’이다.

오답 풀이

- ① 주경야독(晝耕夜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
- ③ 일취월장(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 ④ 다기망양(多岐亡羊):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 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04 <보기>의 연호는 매달 두세 권씩 꾸준히 책을 읽고 있지만 시험에 관련된 책이나 필독서, 추천받은 책과 같이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 읽으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05 이 글은 광명중학 재학 시절에 운동주가 자발적인 독서를

통해 문학 수업에 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보기>는 그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여 문학을 공부하고 이후 주옥 같은 시들을 창작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학창 시절의 독서 경험이 운동주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06 자발적 독자는 자신의 수준이나 흥미,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된 책을 능동적으로 골라 읽고 이를 다른 독서 경험으로 확장시킨다. 따라서 학급이나 도서관의 추천 도서를 위주로 읽는 것은 자발적 독자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07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기 위해서는 독서의 목적이나 상황, 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 같은 방법은 사전이나 설명서 등을 읽을 때 적용하는 독서 방법이다. 선택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책 소개 자료에서 ‘중간’에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자료 더하기

‘책 소개하기’ 자료 구성

- 처음: 자기소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발표할 내용을 안내하는 말
- 중간: 본격적으로 읽은 책을 소개하는 말
 - 책의 서지 정보(책의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 등)
 - 책을 선택하게 된 동기
 - 책의 주요 내용
 - 인상 깊은 구절이나 문장과 그 까닭
 -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
 - 책에 대한 평가
- 끝: 책 소개를 마무리하는 말(강조하고 싶은 말, 감사 인사 등)

(3) 쓰기 과정 성찰하기

본문 실력 쌓기 본문 83-86쪽

01 ㉠ 계획, ㉡ 생성 02 ㉢ 03 ㉣ 04 쓰기 맥락
 05 ㉡ 06 ㉢ 07 ㉠ 08 ㉠ 흐름, ㉡ 화제, ㉢ 요약·강조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예시답 | 공정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얻을 수 있음(공정 여행의 의미)을 유명인의 말을 통해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01 일반적으로 쓰기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02 다원이는 책을 읽고 공정 여행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 경험을 계기로 공정 여행을 소재로 정하였다.
- 03 사람들에게 공정 여행에 대해 알린 후 이를 권유한다는 목적은 드러나 있지만, 글의 종류가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 04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 글의 목적, 주제, 글을 실을 매체 등과 같은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
- 05 다원이는 신문, 인터넷, 책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토의하기: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의한 후,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 ④ 소리 내어 생각 말하기: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에 집중하여 머릿속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 ⑤ 브레인스토밍: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마구 쏟아내는 방법이다.
- 06 다원이는 여러 매체에서 공정 여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정 여행의 의미와 실천 방법, 필요성, 일반 여행과의 차이점과 같은 내용을 생성하였으나, 실제 공정 여행을 경험한 소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7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은 서로 어울려야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다. 쾌적한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의 확충 등’은 상위 항목인 ‘2.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더하기

	통일성	응집성
개념	글의 의미가 내용상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글이 형식상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점검 내용	전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연결어(접속어), 지시어, 대명사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구체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내용은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는 것만 써야 함.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만 드러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적절한 접속어를 써야 함. 반복되는 말은 지시어나 대명사를 활용하여 표현함.

- 08 ‘처음’은 글의 도입부로 글의 화제,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 등을 밝히는 부분이고, ‘끝’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부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다원이가 <개요표>에서 ‘처음’과 ‘끝’의 내용을 바꾼 까닭은 ‘처음’의 ‘공정 여행의 의미’는 글을 정리하고 주제를 부각하는 내용이고, ‘끝’의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화제를 환기하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09 다원이는 그림말(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친숙하게 표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고쳐쓰기’ 단계에서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말을 삭제하였다.
- 10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독자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문장 형식에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 11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독자를 대상으로 쓰는 공식적인 글이므로,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격식체로 표현해야 한다. ‘해요제’는 비격식체로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2 공정 여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13 이 글은 공정 여행에 대해 소개하고 독자에게 공정 여행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을 뿐,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

박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네 번째 문단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논문 자료를 인용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 ②, ⑤ 글쓴이는 공정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며, 각 방법의 기대 효과를 함께 밝히고 있다.
- ④ "공정 여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고 이에 답하는 형식과 "공정 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는 사진을 찍는 것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와 같은 의문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4 ③은 글을 고쳐 쓸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지만, 본문에서 다윈이가 내용의 제시 순서를 고려하여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바꾼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15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라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에서 '새로운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의미한다. 다윈이는 공정 여행의 의의를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91~93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 예시답 | 'II-2-다. 쾌적한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의 확충'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삭제한다. **06** ④ **07** ⑤ **08** ② **09** | 예시답 | 자연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시작하자, 새로운 여행, 공정 여행을. / 우리 함께 떠나자,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을, 등

01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은 다양한 내용을 찾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나)는 개요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내용 생성하기' 이후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나)에서 이 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④ (가)는 계획하기, (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쓰기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의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가)와 (나)는 '표현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며, (가)와 (나) 사이에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들어간다.
- ⑤ 쓰기의 전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02 글의 목적이 '(공정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정 여행을 하도록 권유함.'임을 고려할 때, 공정 여행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임을 추측할 수 있다.

03 (나)에 제시된 개요표의 'II-2.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에서 공정 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공정 여행을 실천하도록 독자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개요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ㄷ에는 여행자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배출하며, 현지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등 일반적인 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ㄷ을 공정 여행의 사례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② 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 여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예상 독자의 특성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ㄱ을 통해 화제인 '공정 여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환기한 후, ㄴ을 통해 공정 여행의 개념을 알려 줌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③ ㄴ에는 공정 여행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정 여행의 의의와 추진 배경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과 '공정 여행의 의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 ④ 이 글의 목적은 공정 여행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므로 ㄷ을 통해 일반 여행의 문제점을 보여 줌으로써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5 'II-2-다. 쾌적한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의 확충'은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공정 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이라는 주제에 맞게 공정 여행을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어야 하므로 ④와 같이 개요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공정 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이라는 주제를 다룬 글에는 공정 여행의 의의나 가치에 주목하는 제목보다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부각하는 제목이 어울린다.
- ② 주제는 바뀌었지만 '공정 여행'이라는 글의 소재는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여행에 대한 개념보다는 공정 여행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 ③ '공정 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을 다룬 글 역시 '공정 여행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다룬 글과 마찬가지로 신문에 실기 적절한 글이므로 매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
- ⑤ '공정 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을 다루는 글에 굳이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공정 여행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07 이 글에서는 공정 여행의 장단점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일반적인 여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 여행의 장점과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환경을 보호하며,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공정 여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지금까지의 여행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 여행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인 여행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되었음을 밝힌 후, 두 번째 문단에서 공정 여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08 ㉠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어지는 문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오답 풀이

- ① '못 쓰게 만들.'이나 '손상함.'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의 올바른 맞춤법은 '훼손하다'이다.
- ③ ㉠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그러면'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은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부사이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⑤ 다른 문장의 종결 표현처럼 ㉠도 '-ㄴ/는다' 형태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09 '~ 우리가 시작하자.(우리 함께 떠나자.)'에 청유형 표현이, '자연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데)'에 의인법이, '~ 우리가 시작하자, ~ 공정 여행을.(우리 함께 떠나자, ~ 착한 여행을.)'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대단원 실력 향상하기

본문 94~98쪽

01 ① 02 ⑤ 03 ⑤ 04 | 예시답 |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을 의미한다. 05 ④ 06 ③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① 12 | 예시답 |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호텔 내부의 음식점에서 소비를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01 글쓴이는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글쓴이는 21세기 일자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를 '제1의 기계 시대', '제2의 기계 시대'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각 시대를 인류의 발전 과정에 따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02 <보기>는 사람이 아닌 '퀘이크봇'이 작성한 기사를 실제 보도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단지 로봇이 인간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제2의 기계 시대'에서는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을 인공 지능 로봇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보기>는 이와 같은 '제2의 기계 시대'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②, ③ 세 번째 문단에서 로봇과 인간의 경쟁 상황과 시장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였다. <보기>의 '퀘이크봇' 역시 전문 직종인 기자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냄으로써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 ④ 세 번째 문단에서 3차 산업 중 부가 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고 하였다. <보기>는 전문적인 기자의 업무를 로봇이 수행해 내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3차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에서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을 뿐, 어떤 기술이나 알고리즘에 따라 로봇이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⑤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제1의 기계 시대'는 산업 혁명이, '제2의 기계 시대'는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이 열었다고 설명한다.
- ②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 여러 사례를 나열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③ 세 번째 문단을 통해 제2의 기계 시대 이전에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예전에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말하고 있다.

04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포함된 전체 문장을 보면 '새로운 과업'은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의 의미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4점
㉠의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05 (나)의 글쓴이는 평생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유연성과 평생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꼽고 있다. 이로 볼 때 글쓴이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보이는 학생은 자신의 분야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희주'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이제껏 내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현재에 안주하면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고 본 '현수'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준희'는 글쓴이와 같은 견해라고 볼 수 있다.
- ③ '지윤'의 견해는 (나)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한다.
- ⑤ (나)의 세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롱'의 의견은 이와 같은 글쓴이의 의견과 통한다.

06 운동주는 스스로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문학 수업'을 목표로 두고 독서를 한 것이지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늘 새벽 2~3시까지 책을 읽곤 했다는 동생의 증언을 통해 운동주가 독서를 생활화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④ 운동주는 누군가 시키거나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문학 관련 책을 읽고 있으므로, 자발적·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문학 작품을 신문과 잡지에서 스크랩하는 모습을 통해 운동주의 독서가 책에 실린 문학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문학 작품까지 독서의 범위를 넓혀 갔음을 알 수 있다.

07 <보기>는 운동주가 책을 구할 수 없자 직접 시집을 필사하여 간직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오답 풀이

- ① 운동주의 동생이 '안감값으로 책을 사야 할 정도로 궁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한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⑤ <보기>는 문학에 대한 애착을 보여 주는 사례일 뿐이므로 이를 운동주가 상급 학교 진학 준비에 소홀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운동주가 상급 학교 진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운동주의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된 증언은 자발적 독서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자발적 독서의 개념, 의의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백과사전이나 참고 서적 등에서 '자발적 독서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이 글은 운동주의 자발적인 독서 태도를 보여 주는 글이므로, '자발적 독서와 관련된 인물의 일화'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⑤ 자발적 독서 태도가 '운동주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자발적 독서의 의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09 '내용 조직하기'는 글의 흐름과 구조를 고려하여 내용을 배열하는 단계이다. ㉢에서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고 있으므로 '표현하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이 글에서 "공정 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지 주민에게는 유익함을 가져다준다."라고 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1 첫 번째 문단에서 개요표의 '처음'에 해당하는 '공정 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 '중간'의 '1. 공정 여행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네 번째 문단에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 가운데 '다. 쾌적한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의 확충' 대신에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공정 여행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개요표에 따라 '공정 여행의 의의'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공정 여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글을 마무리할 수 있다.

12 **출제 의도** 글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소회'는 여행 기간 동안 호텔에서 지내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여행이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소회'에게 조언해 줄 말을 서술한 경우	5점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정 여행을 권유하는 말만 쓴 경우	3점
공정 여행을 권유하는 말만 쓴 경우	1점

수능 맛 보기

본문 99~102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1 네 번째 문단에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고,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 ②, ③ 세 번째 문단에서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청교도 윤리의 영향으로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면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⑤ 네 번째 문단에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라고 하였다.

02 ①은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으로,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색적 삶과 관련 있는 ③이 ①의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기계 기술과 산업 현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견해에 해당한다.
- ② 일하는 것은 활동적 삶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간이 일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은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 ④ 나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지런하게 움직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 ⑤ 인간을 스스로 사색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봄으로써 사색적 삶을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포섭'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다.'이다.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은 '포용'의 사전적 의미이다.

04 <보기>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성과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관철되는 방법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네 번째 문단에서 18, 19세기에는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노동 규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기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보는 관점은 기술 발달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므로, 서로 상반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글감인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나)에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 ②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 (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가)에 예상 독자의 관심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에도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④ (나)에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였다.
- ⑤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봉사 활동에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06 ㉔는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이고, ㉕는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 방안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㉔, ㉕에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A]에는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㉔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다.
- ② [A]에서는 학생들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만 제시하였다. ㉕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자발성이 떨어짐(51%)’ 외에 ‘보람을 느낄 수 없음(4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㉔를 활용하여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③ [A]에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㉕에 언급된 ‘학교에서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⑤ ㉕의 표를 보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자발성이 떨어짐(5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㉔의 첫 번째 문장에서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 ㉕를 활용하여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자발성이 떨어짐(51%)’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07 (나)의 마지막 문단에는 ‘청소년기의 의의’와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으나, 수정된 문단에는 ‘청소년기의 의의’가 빠져 있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㉕가 적절하다.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1) 국어의 변화와 발전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06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자주 정신

01 ‘말쓰미’, ‘문쭙’, ‘뻥한’에서처럼 된소리가 존재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나랏:말’에서 ‘나’는 방점을 찍지 않아 평성(낮은 소리)임을 나타내었고, ‘랏’은 점을 한 개 찍어 거성(높은 소리), ‘말’은 점을 두 개 찍어 상성(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임을 나타내었다.
- ③ ‘말쓰미’는 ‘말씀’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말로, 체언의 받침 ‘미’를 뒤 음절의 초성으로 내려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빅성이’, ‘내’와 같이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고 ‘이’, ‘ㅣ’가 쓰였다.
- ⑤ ‘쁘들’, ‘뿌메’, ‘썩루미니라’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쓰였다.

02 ‘노미 하니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03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옛이응)’이 쓰였다. ‘ㅈ’은 종성에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④ ‘빅성’의 종성에 ‘ㄱ, ㅇ’이 사용되었다.
- ② ‘문쭙’의 종성에 ‘ㄴ’이 사용되었다.
- ③ ‘말쓰미’의 종성에 ‘ㄹ’이 사용되었다.

04 ‘노미’는 현대어 ‘놈이’에 대응되는 말로,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풀이

- ①, ④ ‘어린’, ‘어옛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각각 ‘어리석은’, ‘가엾게, 불쌍하리’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각각 ‘나이가 적은’, ‘예쁘게’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즉,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 ②, ⑤ ‘빅성’, ‘밍꺄노니’는 현대어의 ‘백성’, ‘만드니’에 대응되는 말로, 단어의 형태가 변화한 예이다.

05 ㉠은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의 차이를 알고 우리 고유 문자가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이는 ‘자주 정신’과 관련 깊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110~111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 예시답 | ① 가로로 글을 쓰기 않고 세로로 글을 썼다. ②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여 적었다. 07 ⑤ 08 ③ 09 | 예시답 | 부부가 서로를 대우하여 부르던 표현에서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말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10 ①

01 한자어를 표기할 때에는 한자와 함께 현실 한자음이 아닌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었다.

오답 풀이

- ① ‘ㅼ’, ‘ㅽ’, ‘ㅿ’와 같은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 ② 방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한 개면 거성, 점이 두 개면 상성을 나타내었다.
- ④ ‘ㅇ, ㅎ, ㅁ, ㅂ, ㅅ’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 사용되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놈’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니라’는 ‘많다’라는 뜻으로, ‘어옛비’는 ‘가엾게, 불쌍하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2 ‘ㅁ:춤:내’에서 ‘ㅁ’는 점이 없으므로 평성(낮은 소리), ‘춤’은 점이 한 개므로 거성(높은 소리), ‘:내’는 점이 두 개이므로 상성(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즉, ‘ㅁ:춤:내’는 각 음절의 성조가 모두 다르다.

오답 풀이

- ① ‘쁘들’은 ‘쁠’ 뒤에 목적격 조사로 ‘을’이 결합된 말로, 이는 ‘쁠을’을 이어적기하여 나타난 형태이다.
- ② ‘빅성이’, ‘흙 배’, ‘노미’ 등과 같이 주격 조사로 ‘이’ 계열만 쓰였다.
- ③ ‘성’, ‘흙’의 종성에 사용된 ‘ㅇ(옛이응)’, ‘ㅎ’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에 여덟 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쓰였다.
- ④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 다르다.

03 ㉠에는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이를 전하지 못하는 백성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들었음이 나타나 있다. 이는 애민 정신과 창조 정신과 관련이 깊다.

04 <보기>는 ‘이어적기’에 대한 설명이다. ‘사름마다’는 ‘사름’과 ‘마다’가 결합한 말로, 이는 이어적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말쓰미: 말씀 + 이(주격 조사)
- ② 뿌들: 뿌 + 을(목적격 조사)
- ③ 노미: 놈 + 이(주격 조사)
- ⑤ 썩루미니라: 썩롬 + 이니라(서술격 조사)

05 '中(國·國)'에서 '둥'의 받침에는 음가가 있는 'ㅇ'이 쓰였으며, 현대 국어에서 [중]으로 발음된다.

06 <훈민정음>(언해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고 문장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썼다.

07 (나)는 특정 분야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전문어에 한해 외국어와 한자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어휘의 변화 양상에는 형태의 변화, 의미의 변화 등이 있다. (가)와 현대 국어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어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는 1586년에 쓰인 편지글로, 16세기 말엽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국어 자료이다.
- ③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국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가)와 같은 각 시기의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는 문화와 예술 분야, 일상 업무에서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의 남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08 (가)는 16세기 말에 쓰인 편지글로, 중세 국어 시기의 자료이지만 방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아버님', '자내', '엇디후야', '나를' 등을 통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상뵈'는 현대 국어의 '올림', '상해'는 현대 국어의 '항상'에 대응되는 말로, 이를 통해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단어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더하기 

- 성조

중세 국어에 사용된 성조는 16세기 중엽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16세기 말엽 문헌에서부터 방점이 표시되지 않게 되었다. 성조는 적어도 16세기 말에 소멸하였는데, 대체로 평성과 거성은 짧은 소리로, 상성은 긴 소리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 이르렀다.
- ㅁ, ㅅ, ㅌ의 변화
 - (1) ㅁ(순경음 비음): 'ㅁ'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 [w]로 바뀌기 시작했다. 예 셔불>서울, 쉬븐>쉬운
 - (2) ㅅ(반치음): 'ㅅ'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소멸하였다. 예 무숨>마음, 아수>아우
 - (3) ㅌ(아래아): 'ㅌ'는 점차 음가가 소멸되기 시작하여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ㄷ'로 변화하였으며, 18세기부터는 첫째 음절에서도 주로 'ㄷ'로 변화하였다. 예 ㄱ루치다>ㄱ르치다>가르치다

09 '자내'는 중세 국어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대우하여 부르던 표현으로 쓰였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친구나 아랫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표현으로 쓰였다. 이는 의미가 이동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0 ㉠은 외국어를 남용한 문장이므로,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뜻이 잘 통하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패션 잡지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괄호에 제시된 표현처럼 외국어를 뜻이 잘 통하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은 어려운 한자어를 남용한 것이 문제이지만, 한자어도 우리말에 해당하므로 모두 고유어로 바꿀 필요는 없다. 뜻이 잘 통하도록 쉬운 한자어로 풀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각 분야에서 관습적으로 외국어나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를 지양하고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14~119쪽	
01 ㉓	02 ㉓	03 ㉑	04 ㉓
05 ㉒	06 ㉑	07 ㉒	08 ㉒
09 ㉓	10 ㉒	11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12 ㉑
13 ㉓	14 ㉓	15 ㉑	16 ㉓
17 ㉑	18 ㉑	19 옹기 있는	20 ㉑
21 ㉑	22 연호는 몸		

- 01 “어제 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셨다.”는 높임 표현(주체 높임법), 시간 표현(과거 시제)이 쓰인 문장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문법 요소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02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에는 도둑이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한 것을 나타낸 피동 표현이 쓰였다
- 03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국어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 04 격식체는 높임의 정도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로 나뉜다.
- 05 가 문장에서 말하는 이는 선생님, 듣는 이는 민주이고, 나 문장에서 말하는 이는 민주, 듣는 이는 선생님이다.
- 06 ‘가세요’는 ‘가다’의 명령형이 비격식체인 ‘해요체’로 쓰인 것이다. 이를 격식체로 바꾸면 높임의 정도에 따라 ‘가십시오,

자료 더하기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십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렴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해체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 가(시오), 가게, 가(거)라’로 쓸 수 있다.
- 07 태희와 지현이는 반 친구이며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상황이므로 비격식체 가운데 ‘해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08 가에서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
- 09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로, 대화에서 서술의 객체(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 10 ㉒는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를 사용한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서’와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 ③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뵙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 ④ 부사어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서’와 ‘여쭙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 ⑤ 부사어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서’와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 11 소희는 듣는 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해요체를 사용하였고(상대 높임법),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주체 높임법).
- 12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 시제’이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면 ‘미래 시제’이다.
- 13 과거 시제는 ‘달린 학생’과 같이 동사에 ‘-(으)ㄴ’을 사용하여 관형사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더-’를 사용한다.
 - ②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 시제는 시간 부사어 ‘옛날에, 어제, 아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다.
 - ⑤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 시제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 ‘-더-’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 14 ‘걸어갔다’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먹는다', ② '예쁘다', ④ '떠가는', ⑤ '군인인', '존경한다'를 통해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은 관형사형 어미 '-니'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은 '-(으)ㄴ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6 서술어를 '잡았다'로 바꾼다는 것은 능동문으로 고친다는 의미이므로, 이때 능동문의 주어는 '호랑이가'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잡혔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17 ④는 주어가 제힘으로 밥을 뒤집는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낸 능동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어지다'를 붙여 만든 '이루어진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 ② 피동 접미사 '-가-'를 붙여 만든 '찢겼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 ③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잡혔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 ⑤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덮었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18 '만들어졌다'는 '만들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19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피동문의 부사어이자 '밝히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용기 있는 기자'가 능동문의 주어가 된다.

20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조사 '고'를 써서 표현하고,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써서 표현한다.

21 ㉠은 '비가 그치다.'라는 문장이 '우리는 기다렸다.'의 목적어로 쓰인 안은문장(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22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하려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정리한 후 조사 '고'를 사용한다.

23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분문 124~125쪽

- 01 ① 02 ④ 03 ③ 04 | 예시답 | '가셨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쓰였고, '모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손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05 ⑤ 06 ④ 07 | 예시답 | (1)은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2)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형용사의 기본형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08 ② 09 ② 10 | 예시답 | '달혀졌다'는 '달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달혔다'로 고쳐야 한다.
- 11 ⑤ 12 ⑤ 13 ⑤

01 주체 높임법에서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간접 높임).

02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④는 비격식체 가운데 '해요체'가 쓰인 의문문이다. 나머지는 격식체가 쓰인 의문문이다.

오답 풀이

① 해라체, ② 하계체, ③ 하오체, ⑤ 하십시오체

03 ㉡은 해라체('와라')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낮추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특수한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 ④ ㉢은 특수한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4 '모시러'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객체인 '손님'을 높이는 특수한 어휘이고,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가셨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05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오라고 하셔(오라셔)'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는 '고객님이 주문하신'에서 '고객' 뒤에 접사 '-님'을 붙이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고객'(사람)을 높이고 있고, '커피 나오셨어요'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커피'(사물)를 높이고 있다.
- ② ㉢는 상대를 높이려다가 사물까지 과도하게 높인 표현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제외한 "커피 나왔어요." 혹은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④는 “선생님이 너 교실로 오시래(오시라고 해).”라는 문장으로,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객체인 ‘너’를 높인 결과가 되었다.
- ④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④ ‘비울’은 선어말 어미가 아닌 관형사형 어미 ‘-르’이 쓰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며, 이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⑥ ‘했던’, ⑦ ‘정해졌다’와 호응한다.
- ② ⑥ ‘했던’에는 회상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사용되었다.
- ③ ③ ‘내일’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이다.
- ⑤ ⑦ ‘정해졌다’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07 종결형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르-’를 사용하고,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08 ㉠의 ‘만남’은 동사 ‘만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는 어미 ‘-았-’은 ㉠에 사용되었다.
- ③ ㉠에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다.
- 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의 ‘작년 겨울에는’만 사용되었다. ㉠의 ‘처음’, ㉡의 ‘벌써’는 시간 부사어로 보기 어렵다.

09 ②는 선어말 어미 ‘-었-’과 시간 부사어 ‘어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겠-’은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⑤ ⑤는 선어말 어미 ‘-겠-’과 시간 부사어 ‘내일 새벽에’가 쓰였으므로, 이때의 ‘-겠-’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10 ‘달히다’는 ‘달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이다. 따라서 피동사 ‘달히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달혀졌다’는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1 ‘깎다’는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피동사 ‘깎이다’를 만들 수 있지만, ‘걸다’와 ‘씻다’는 각각 피동 접미사 ‘-리-’, ‘-기-’를 붙여 피동사 ‘걸리다’, ‘씻기다’를 만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능동문은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피동

문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12 ㉠은 직접 인용문이고, ㉡은 간접 인용문이다. 직접 인용문은 말하는 이의 말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발화 상황이나 어감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에 반해 간접 인용문은 서술자가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달하기 때문에 말 자체의 생동감이나 현장감은 덜해지지만, 말의 내용이 객관화되어 좀 더 격식 있게 느껴진다.

오답 풀이

- ③ 조사 ‘라고’ 대신에 동사 ‘하다’를 사용하여 ‘권투 챔피언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하고 말했다.’로 표현할 수 있다.

13 간접 인용에서는 본인을 지칭하는 ‘나’는 ‘자신’ 또는 ‘자기’와 같은 삼인칭 대명사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나’를 ‘자신’ 혹은 ‘자기’로 바꾸어 “민아는 친구들에게 자신(자기)은 다음 시험에서 만점을 꼭 받았다고 말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② 간접 인용문, ③·④ 직접 인용문이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 예시답 | 중세 국어에서는 '말쓰미', '흠 배' 등과 같이 주격 조사 '이', 'ㅣ'가 쓰인 반면에, 현대 국어에서는 '이', '가'가 쓰인다.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 예시답 | (1)에서는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지만, (2)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일을 미리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 데 쓰이고 있다. 12 ① 13 ③ 14 ④

01 (가)의 '말쓰미', '쁘들' 등에서, (나)의 '위늬'에서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방점은 (가)에만 나타난다.
- ② 동국정운식 한자를 표기는 (가)에만 나타난다.
- ③ (가)의 '셈중엄쟁', '문쫘' 등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ㅇ'이 쓰였으나, (나)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에는 '빙', 'ㅎ'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쓰였으나, (나)에는 이러한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02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 '사람이'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놈(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어린', '어옛비', '자내'는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03 중세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퍼디'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퍼지'로 적는다.

04 '어'는 상성으로,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 ① '말'은 점이 두 개이므로 상성, '쓰'는 점이 없으므로 평성, '미'는 점이 한 개이므로 거성이다.
- ② '달'은 평성, '아'는 거성이므로 '달이' '아'보다 소리가 낮다.
- ③ '서'와 '르'는 모두 점이 없으므로 평성이다. 평성은 낮은 소리이다.
- ④ '물'은 중성이 'ㄷ'으로 끝나므로 입성에 해당한다.

05 (출제 의도 및 해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주격 조사를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 'ㅣ'가 쓰였으며,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는 쓰이지 않았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가)에서 주격 조사 '이', 'ㅣ'가 쓰인 예 가운데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1점)	4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만 밝힌 경우	2점

06 '나랏 말쓰미 등귀에 달아'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로, ㉠은 비교적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는 ④의 '와(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쓰임과 유사하다.

오답 풀이

- ① 으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에게: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과: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⑤ 와: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을 만들거나 이룬 형성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07 외국어를 뜻이 잘 통하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발전시키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08 제시된 문장에는 부사어 '아버지께'가 생략되어 있는데, '드리다'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는 어휘이다.

오답 풀이

- ③ 말하는 이는 직접 드러나지 않고, 듣는 이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자녀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④ 해요체를 통해 듣는 이인 '아버지'를 높이고(상대 높임법),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였으며(주체 높임법),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객체 높임법).

09 ⑤는 말하는 이가 '교장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인 '말씀'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간접 높임)이다. 나머지는 말하는 이가 높이는 대상인 사람을 직접 높인 예이다.

10 (가)는 미래 시제, (나)는 과거 시제, (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위치를 절대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이다.

11 (출제 의도 및 해설) 선어말 어미 '-었-'이 다양한 쓰임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1)의 '-었-'은 <보기>에서 「1」의 의미로, (2)의 '-었-'은 「3」의 의미로 쓰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1)과 (2)의 쓰임을 정확하게 쓴 경우	4점
(1)과 (2) 중 하나의 쓰임만 정확하게 쓴 경우	2점

12 '구한'은 동사 '구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㉔ 선어말 어미 '-였-'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13 ㉑은 능동문이고, ㉒은 피동문이다. ㉑의 주어 '경찰이'는 ㉒에서 부사어 '경찰에게'로 바뀌었다(ㄱ). 또한 능동문은 주어의 행위가 강조되며, 피동문은 행동을 당한 대상이나 상황이 강조된다(ㄴ).

오답 풀이

ㄴ. '잡혔다'는 '잡았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것이다.
 ㄷ. '잡혔다'는 피동사인데, 여기에 '-어지다'를 결합하면 이중 피동 표현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14 ㉑에서 직접 인용을 한 것은 영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시구의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㉑은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 하고 있다.
 ③ ㉑은 민서의 말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한 말의 안에 있는 다른 인용한 말은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⑤ ㉑, ㉒, ㉓는 조사 '라고', ㉔는 조사 '고'를 사용하여 인용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수능 맞 보기

본문 129~134쪽

- 01 ㉔ 02 ㉑ 03 ㉔ 04 ㉑ 05 ㉓ 06 ㉔
 07 ㉓ 08 ㉑ 09 ㉓ 10 ㉔ 11 ㉓ 12 ㉔
 13 ㉑

01 ㉒, ㉔의 현대어 풀이가 각각 '선인이', '연꽃이'임을 고려할 때 '이'와 'ㅣ'은 모두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주격 조사인데 형태가 다른 까닭은 체언의 음운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㉒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쓰이고, ㉔처럼 앞말이 'ㅣ'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후산'의 현대어 풀이가 '하산'임을 고려할 때,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南堀(남굴)ㅅ'의 현대어 풀이가 '남굴의'임을 고려할 때, 'ㅅ'이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㉑과 ㉒의 현대어 풀이가 '세간에'와 '시절에'임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성 모음 뒤에는 '애', 음성 모음 뒤에는 '에'가 쓰였다.
 ⑤ '쉽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쉽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구개음화에 따른 결과이다.

02 '雙鵬(쌍조)ㅣ'의 현대어 풀이는 '두 마리 독수리'가이다. 즉, ㉑은 '쌍조'라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뻬니'에서 음절의 초성에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ㅼ니'이 쓰였다.

03 이어적기는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다. 그러나 '업던'에서 '던'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므로 이어적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변하지 않고 '모딘'으로 쓴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모새'는 '뫓'과 '애'가 결합된 것으로, '뫓'의 모음이 양성 모음임으로 양성 모음 '애'가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04 ㉑ 우름: 현대 국어의 '울음'에 대응되며, 이어적기에 해당한다.
 ㉒ 우서: 현대 국어의 '웃어'에 대응되며, 이어적기에 해당한다.
 ㉓ 미워흙을: 현대 국어의 '미워함'에 대응되는데 '미워흙'

과 목적격 조사 ‘을’을 분리하여 적었으므로, 끊어적기에 해당한다.

- ㉔ 일은: 현대 국어의 ‘일은’에 대응되며, 끊어적기에 해당한다.
- ㉕ 잇스면: 현대 국어의 ‘있으면’에 대응되며,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스’을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었으므로, 거듭적기에 해당한다.

05 (가)의 ㉔에서 종성에서 ‘ㄷ’, 과 ‘ㅅ’ 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④ (가)의 ㉔에서 방점으로 성조를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히’에는 점을 두 개, ‘여’에는 점을 한 개가 찍은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⑤ 연철 표기는 이어적기를 말한다. ‘뿌메’는 ‘쁘-+ -음(명사형 어미)+에(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것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으므로 이어적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㉔의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로,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쓴 특수한 어휘이다.

오답 풀이

- ① ㉔의 ‘-느구나’는 듣는 이는 ‘동생’을 낮추기 위해 쓴 종결 표현으로 해라체에 해당한다.
- ② ㉔의 ‘계시다’는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쓴 특수한 어휘이다.
- ③ ㉔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㉔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7 ㉔에서 ‘잡수시다’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용언(㉔)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나이’)을 높이는 명사(㉔)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분’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에 해당하며, ‘성함’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이름’)을 높이는 명사(㉔)이다.
- ② ‘여쭙다’는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고, ‘택’은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집’)을 높이는 명사(㉔)이다.
- ④ ‘부모님’은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이고, ‘모시다’는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 ⑤ ‘주무시다’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㉔)이다.

08 ‘모시고’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특수한 어휘이고, ‘갓어요’의 ‘-어요’(해요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이다. 따라서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문장의 주어인 ‘영희’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먹었겠니’에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㉔)이고, ‘-겠-’은 주체의 의지가 아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㉔)이다. 그리고 ‘-니’는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어말 어미(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심었구나’에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㉔)이고,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㉔)로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② ‘청소하느’에서 ‘-느’은 동사 ‘청소하다’의 어간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므로, 이는 어말 어미(㉔)에 해당한다.
- ④ ‘읽은’에서 ‘-은’은 동사 ‘읽다’의 어간에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므로, 이는 어말 어미(㉔)에 해당한다.
- ⑤ ‘볼겠지만’에서 ‘-겠-’은 화자의 추측을 의미하는 선어말 어미(㉔)이다. ‘-지만’은 앞뒤 절을 역접 관계로 이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므로, 이는 어말 어미(㉔)에 해당한다.

10 ‘나뻐어’는 과거 ‘소풍날’의 날씨가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㉔가 아니라 ㉔(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② ‘보았어’, ‘갓어’는 각각 ‘어제’, ‘아까’라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므로 ㉔에 해당한다.
- ③ ‘잡겼어’는 ‘아직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감기 때문에 목이 잠긴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㉔에 해당한다.
- ⑤ 과제 준비를 하느라 앞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임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㉔에 해당한다.

11 ㉔에서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는 두 학생이 각각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와 두 학생이 모두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띤 문장이지만,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는 중의성이 해소되어 두 번째 의미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㉔의 능동문과 피동문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된다.

오답 풀이

- ① “은 세상이 눈에 덮였다.”는 눈이 덮인 상황이 강조되므로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㉔, ㉔에서 능동문의 주어 ‘눈이’, ‘두 학생이’가 피동문에서 각각 부사어 ‘눈에’, ‘두 학생에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㉔에서 자동사(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인 ‘날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만든 피동사 ‘날리다’가 사용되었다.
- ⑤ 피동문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는 능동문의 주어가 불분명하고 상황 의존성이 강해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다.

12 ㉠의 '안졌다'는 '안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이고, ㉡의 '안졌다'는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 ㉡의 '풀렸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 ② ㉠의 '업혔다'는 피동사이고, ㉡의 '업혔다'는 사동사이다.
- ③ ㉠의 '말렸다'는 사동사이고, ㉡의 '말렸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의미를 지닌 타동사이다.
- ④ ㉠, ㉡의 '눅었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자료 더하기 

사동 표현

- (1) 개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킴을 나타낸 표현. → 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함을 나타낸 표현.
- (2) 실현하는 방법
 -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여서 만들.
 - 예 끓이다, 넓히다, 열리다, 남기다, 비우다, 달구다, 늦추다
 - 접미사 '-시키다'를 붙이거나, '-게 하다'를 활용하여 만들.
 - 예 (차들) 정지시키다, (차들) 정지하게 하다
- (3)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13 첫 번째 직접 인용문에서 '내일'은 말하는 시점에서 '오늘'에 해당한다. '계십시오'는 아들이 서술의 주체인 부모를 높인 것인데, 간접 인용문에서는 말하는 이가 부모 자신이 되므로 '있으라고'로 표현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인용문에서 '나의'는 언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간접 인용문에서 '자기'로 표현해야 한다. '남겨라고'는 간접 인용의 명령형인 '남기라'로 바꾸고 조사 '고'를 붙여야 한다.

9 |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1) 토론과 논증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38~146쪽

-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효과와 이익
- 06 ⑤ 07 ㉠ 이유, ㉡ 근거 08 ③ 09 ㉠ 입론, ㉡ 반론
- 10 ① 11 ⑤ 12 ③ 13 동물 실험이란, 실험을 말합니다.
- 14 ① 15 ① 16 ③ 17 동물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이지만 이를 사용한 다수의 사람이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기 때문이다.
- 18 ④ 19 | 예시답 | 실험동물의 구입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 있고, 동물 실험의 윤리 문제도 피할 수 있다. 20 ② 21 ②
- 22 ㉠ 실행 가능성, ㉡ 타당성 23 ② 24 ①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②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
- 25 ② 26 ② 27 ⑤ 28 ④ 29 ⑤ 30 ③
- 31 ④ 32 | 예시답 | 동물 실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01 교차 신문은 입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하기이다. 교차 신문에서는 상대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다.
- 02 입론은 찬성 또는 반대 측에서 자기 측의 주장이 타당함을 이유를 제시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로서 찬성 측, 반대 측에서 모두 발언하게 된다.
- 03 '자유가 평등보다 가치 있다.'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사실 논제에 해당하는 예로는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를 들 수 있다.
- 04 '효과와 이익'은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필수 쟁점이다.
- 05 필수 쟁점 중 효과와 이익은 '비용이 효과와 이익보다 큰지 작은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 06 '논증'은 주장과 그 주장의 이유 및 근거로 구성된다. 이유는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07 ㉠은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인 '이유'이고, ㉡는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정보인 '근거'이다.
- 08 평결은 배심원이 한다. 따라서 평결 단계에서는 배심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 09 찬성 측 첫 번째 교차 신문 뒤에는 찬성 측 입론이 이어지고, 찬성 측 두 번째 교차 신문 뒤에는 반대 측의 반론이 이어진다.

10 이 토론은 찬반 양측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를 다루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오답 풀이

④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찬성 측은 정책이 변화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11 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논제를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⑤도 토론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토론의 시작 부분이 아닌 토론 중간에 양측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지금부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와 같이 논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②, ③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에서 발언 순서를 지정하면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④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유의점을 숙지시키고 있다.

12 ②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중 첫 부분으로 논제의 배경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교차 신문의 역할이다.

② 토론의 논제를 밝히는 것은 사회자 발언의 역할이다. 토론하면서 논제의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④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의 역할이다.

⑤ 토론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3 찬성 1 토론자는 입론에서 먼저 ‘동물 실험’이란 용어를 사용한 뒤 “동물 실험이란 새로운 약품이나~실시하는 실험을 말합니다.”라고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14 [A]의 주장의 핵심은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이다. 토론자는 먼저 핵심 주장을 내세운 뒤 이유와 근거를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주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③, ⑤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및 근거이다.

15 ㉠은 ‘동물 실험은 비윤적이다.’라는 주장과 나머지 근거(㉡~㉣)를 이어 주는 ‘이유’에 해당한다.

16 ㉤은 전문가가 쓴 책의 내용을 밝힌 부분으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전문가는 이를 대신 ‘저명한 수의학자’라고 언급하였다.

오답 풀이

① ‘탈리도마이드’라는 이름의 약물을 예로 들었다.

② 2만 7천여 명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④ ㉠에서는 기형아를 낳은 부작용 사례, ㉡에서는 급성 심장병으로 고통 받은 부작용 사례를 밝혔다.

⑤ ㉠, ㉡, ㉢ 모두 동물 실험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되었던 약물이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17 토론자는 실험에서 검증받은 약일지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8 [A]에서는 ‘해결 방안’으로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해결 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19 [A]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체 실험을 상용화했을 때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익을 밝히고 있다.

20 ‘교차 신문’은 상대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이나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로, 상대측이 답변을 오래 끌 경우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교차 신문을 할 때에는 상대측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과 근거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하며, 새로운 논증을 펼쳐서는 안 된다.

③, ⑤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질문하여 상대측이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이 답하게 하여 논리를 길게 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측이 답변 시간을 오래 끌 경우에는 예의를 지키되 단호하게 중단한다.

④ 상대측 토론자 중 한 명이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21 ㉡은 ‘대체 실험이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질문이다.

오답 풀이

③ ㉢의 두 가지 질문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혼란을 초래하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과 ㉢은 찬성 측 발언 중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반대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질문이다.

22 ㉢에서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에서 빈약한 부분이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고, 찬성 측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답변을 끌어냈다.

23 찬성 측 입론에 대한 교차 신문이 반대 측의 첫 번째 발언이다.

24 토론자는 먼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25 [A]에서는 '동물 실험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B]에서는 '동물 실험과 관련한 비용과 이익에 대해 다루고 있다.

26 ㉠은 각 동물 실험 기관 내에 동물실험 감독위원회가 있다는 정보만 제공할 뿐, 시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27 인공 세포는 인간의 실제 세포를 완벽히 재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인공 세포, 컴퓨터 모의실험 등은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동물 실험은 정확성과 신속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대체 실험은 인간의 실제 세포를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 ④ 컴퓨터 모의실험은 일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전제로 하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28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는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9 ㉠~㉣은 모두 대체 실험이 인간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30 찬성 측의 교차 신문은 반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이유, 근거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이다. 찬성 측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입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교차 신문이 주장을 다시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

31 ㉠, ㉣은 반대 측의 허점이나 논리적 오류를 효과적으로 지적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찬성 측 입장에서는 반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32 반대 측에서는 당시의 실험이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150~152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예시 답 지금 바로 대체 실험이 시행될 수 있는 단계인가요?									
07 ③	08 ②	09 ②	10 ⑤	11 예시 답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해야 한다. / 사회자의 진행에 따르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01 입론 단계에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교차 신문에서 질문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③ 입론에서는 주장과 이유, 그 근거가 타당하도록 논증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찬성 또는 반대라는 관점이 분명해야 한다.
- ⑤ 필수 쟁점인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02 이 토론의 논제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정책의 실행 여부와 관련된 정책 논제이다. ③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가운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03 (라)에서 대체 실험을 상용화하는 데에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다)에서는 《탐욕과 오만의 동물 실험》이라는 책을 근거의 출처로 밝혔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동물 실험으로 동물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예를 제시하였다.
- ② (다)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친 약이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기형을 낳거나 급성 심장병으로 고통 받은 예, 약물 거부 반응으로 사망에 이른 예를 제시하였다.
- ④ (나)에서는 구체적인 약품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에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특정 약품의 이름을 밝혔다.
- ⑤ (나), (다)의 예들은 모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05 (라)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체 실험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이나, 단점을 함께 제시하므로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 ③, ④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⑤ (나)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근거이다.

06 대체 실험으로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의 논리

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면 교차 신문으로 적절하다. 대체 실험이 당장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은 교차 신문의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07 동물복지법이 시행되어 실험동물의 생활 환경이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나)는 동물 실험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다)는 동물 실험에 효과와 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라)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나)는 문제, (다)는 효과와 이익, (라)는 해결 방안과 관련된다.

09 (나)에서 미국의 동물복지법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을 언급했으나, 이 둘을 비교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다)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매우 큰 이익을 가져다준 예를 제시하였다.
- ④ (다)에서 언급한 인슐린, 소아마비 백신, 비형 간염 백신 등은 모두 널리 알려진 약물을 예로 든 것이다.
- ⑤ (나), (다)의 예는 모두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10 교차 신문을 할 때는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의 주장에서 논리적으로 빈약한 부분이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세대 기간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대 기간이 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관찰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11 반대 1 토론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회자의 진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자신의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언 시간을 지킬 것, 사회자의 진행 지시를 따를 것과 같은 내용을 조언할 수 있다.

(2) 협상과 갈등 해결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54~158쪽

- 01 ④
 - 02 ④
 - 03 ②
 - 04 ①
 - 05 ②
 - 06 ②
- 07** | 예시 답 | 두 도시 간의 문제를 확인하고 양측의 처지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08** ⑤ **09** ③ **10** | 예시 답 | 행복시는 문화시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하여 들꽃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반면에, 문화시는 소재만 비슷할 뿐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 11 ③
 - 12 ②
 - 13 ③
 - 14 ④
 - 15 ④
 - 16 ②

01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고자 의사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02 협상은 '시작 단계(ㄱ) - 조정 단계(ㄴ) - 해결 단계(ㄷ, ㄹ)'의 순서로 진행된다.

03 협상은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04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 분석(①)'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이 이루어진다. ②~④는 조정 단계, ⑤는 해결 단계에서 진행된다.

05 행복시는 문화시가 행복시의 '들꽃 축제'와 유사한 '풀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행복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부분은 문화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제안하는 부분이다.

07 행복시와 문화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축제와 관련한 자신의 처지와 관점을 서로에게 설명하였다.

08 문화시에서 행복시와 유사한 축제를 개최하면서 행복시의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행복시의 입장이다. 행복시의 관광객 감소가 문화시의 관광객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09 문화시는 문화시와 행복시의 축제가 소재면에서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두 도시의 축제에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0 행복시에서는 "문화시가 들꽃 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시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다."라고 하였고, 문

화시에서는 ‘소재만 비슷할 뿐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11 문화시는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라는 행복시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행복시는 ㉠에서 문화시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도록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행복시는 처음에는 문화시의 축제 운영 자체를 반대했으나 축제 내용을 다르게 할 것,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것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였다.
- ② 문화시는 축제의 내용을 차별화해 달라는 제안은 수용하였으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④ 문화시는 행복시의 축제를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나누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⑤ 문화시는 행복시가 제안한 축제 내용의 차별화와 행복시의 축제 홍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발언하고 있다.

12 문화시는 경제적 손실을 일부라도 보존해 달라는 행복시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공동 사업을 추진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13 행복시와 문화시는 상대측이 제시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14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축제를 먼저 개최해 경험이 풍부한 행복시가 문화시에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5 ㉠은 문화시가 행복시로부터 들꽃 축제의 운영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문화시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 얻어 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16 문화시 또한 행복시의 협력을 얻어 내실 있는 축제를 열게 되었으므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협상을 통해 문화시가 행복시의 축제를 홍보하고 문화시의 축제를 차별화하기로 하였으므로 행복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④ 협상을 통해 문화시와 행복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두 도시의 갈등이 해결되었으므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공동 사업이 이후에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162~164쪽

01 ④ **02** ⑤ **03** | 예시답 | 행복시는 문화시가 들꽃 축제를 중단하기를 바라고, 문화시는 들꽃 축제를 지속하기를 바란다. **04** ⑤

05 ④ **06** ③ **07** ③ **08** ④ **09** ② **10** ①

11 | 예시답 | 해결 단계에 해당하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이행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01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 (나)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나)에서 ‘들꽃 축제’에 대한 행복시의 입장에 대해 문화시가 반박하고 있으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행복시의 ‘들꽃 축제’와 유사한 축제를 문화시에서 개최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문화시는 행복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 ③ (나)에서 행복시는 문화시의 ‘들꽃 축제’로 인해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다는 점,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들꽃 축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 (나)는 조정 단계 중 문제 확인 및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양측의 제안과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02 협상은 문제를 해결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상대측의 불리한 입장을 부각하여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측에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기 측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03 (가)에서 행복시는 문화시에게 ‘들꽃 축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문화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04 ‘먼저 축제를 개발하면서 큰 비용이 들었다.’는 행복시의 언급에 대한 문화시의 반응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⑤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문화시의 ‘들꽃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이 행복시의 ‘들꽃 축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화시가 판단하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행복시는 문화시가 ‘들꽃 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개최해서 ‘들꽃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들꽃 축제’를 ‘들꽃 축제’와 차별화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07 행복시와 문화시는 어느 도시의 축제를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도시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유사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상을 하게 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이 협상은 행복시와 문화시라는 두 집단 사이의 협상이다.
 - ② 행복시가 축제 중단을 요구하고 문화시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었다.
 - ④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양측은 서로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 ⑤ 두 도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 08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 달라는 행복시의 제안에 대해 문화시가 행복시에 제시한 대안이다.
- 09 문화시는 축제의 이름을 변경하고 행복시의 축제와 차별화되는 내용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문화시가 축제의 내용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 10 행복시의 협상 참여자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축제를 중단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 11 (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상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협상의 절차 중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대단원 실력 향상하기

본문 165~169쪽

- 01 ⑤ 02 ③ 03 (나)-(가)-(라)-(다)-(마) 04 ④
 05 ④ 06 ⑤ 07 | 예시 답 | 찬성 측이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체 실험이 현재 상황에서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08 ② 09 ③ 10 ② 11 ① 12 ③
 13 | 예시 답 | 동물 실험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14 ⑤ 15 ① 16 ③ 17 ②
 18 | 예시 답 | 문화시가 축제를 지속하도록 양보하였고, 문화시에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9 ④

01 논증은 명확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 및 근거로 구성된다. 근거는 이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가리킨다.

02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반론, 평결의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자가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하지만 평결은 사회자가 아니라 배심원이 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토론에서는 주장과 이유, 근거로써 논증을 구성한다. 주장은 명확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와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 ② 토론의 발언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입론'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론'으로 이루어진다.
 - ④ 이 토론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를 다루고 있다.
 - ⑤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이 해당된다.
- 03 (출제 의도 및 해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 (나)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다)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라)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 (마)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다. 이를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면 (나)-(가)-(라)-(다)-(마)이다.
- 04 (가), (나)가 찬성 측의 입론, (다)가 반대 측의 입론인 것은 맞지만 (나), (다)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해결 방안 및 효과와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입론의 첫 부분으로서 논제의 배경 및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찬성 측의 핵심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 ③ (가)는 동물 실험에 금지에 찬성하는 측, (다)는 동물 실험 금지에 반대하는 측의 입론이다. (가)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에서는 논리적 이유를 들어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⑤ (가), (나)는 동물 실험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 (다)는 동물 실험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05 (라), (마)는 교차 신문의 과정에 해당한다. 질문하는 측에서는 상대측이 답변 시간을 오래 끌 경우에 답변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06 ⑤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07 (출제 의도 및 해설) 토론에서 교차 신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라)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다. 반대 측은 교차 신문을 통해 찬성 측으로부터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 실험들이 시행 가능한 단계가 아님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즉, 찬성 측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고 반대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찬성 측 토론자의 답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반대 측 교차 신문의 성과를 서술한 경우	5점
찬성 측 토론자의 답변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으나 반대 측 교차 신문의 성과를 서술한 경우	3점

08 <보기>에서는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들고 있다. 이는 동물 실험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토론의 흐름상 (나)의 마지막 말인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9 제시글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과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 부분이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앞부분에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이 진행되며,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신문' 뒤로는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이어진다.

10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이 엄격한 법적 규제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에서 찬성 측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반대 측 토론자가 “(동물 학대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실험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②는 반대 측 견해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찬성 측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반대 측 토론자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동물 실험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이바지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찬성 측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반대 측 토론자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우선 동물 실험은~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1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지 않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동물 실험이 인간에 미치는 이익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또다른 주장으로는 <보기>에서 찬성 측이 ‘동물 실험을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찬성 측에서 ‘효과와 이익’ 측면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③ (가)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④ (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⑤ 찬성 측 두 번째 주장과 통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교차 신문에서는 상대측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여 그것이 결국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다)에서 찬성 측의 교차 신문은 반대 측이 모두 적절하게 방어하였기에 효과적으로 질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이 찬성 측의 교차 신문에 모두 적절하게 답변을 하였기에 찬성 측의 교차 신문이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반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없다.

④ 찬성 측의 교차 신문이 반대 측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⑤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입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한 부분은 없다.

13 (출제 의도 및 해설) 제시된 문단의 주장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토론자의 발언을 서술한 경우	4점
'조건 1'을 충족하여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2'의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2점

④ 유사 정답 의미가 통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14 협상은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 해결의 말하기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한 협상 태도가 아니다.

15 행복시와 문화시가 서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은 두 도시 모두 동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③, ④ 행복시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시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 ⑤ 협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6 협상의 절차 중 조정 단계로서 행복시와 문화시는 축제와 관련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17 행복시가 문화시의 축제를 홍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시가 행복시의 축제를 홍보하기로 협상하였다.

18 (출제 의도 및 해설)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보한 것과 얻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행복시는 문화시에 축제를 차별화하고 축제 이름을 바꿀 것, 들꽃 축제를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하고, 대신에 문화시가 축제 운영을 지속하는 것, 문화시에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양보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행복시가 양보한 것 두 가지를 쓴 경우	4점
행복시가 양보한 것을 한 가지만 쓴 경우	2점

19 ㉔은 문화시가 행복시에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부분으로, 행복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행복시 입장에서 축제의 고유성이 훼손되었음을 밝히며 문화시에 축제 종단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문화시가 축제 종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면 축제 운영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한발 물러나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
- ③ 문화시는 행복시의 축제 홍보 제안은 받아들이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제안은 거절하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을 나누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행복시가 축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문화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두 축제가 너무 비슷해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에 축제 이름을 바꾸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능 맛 보기

본문 170~172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1 반대 1은 기존의 심사 방식에 대해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타당성이 높으며, 모든 동아리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반대 1은 기존 심사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찬성 1의 발언에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찬성 1은 추천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추첨 방식)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다.
- ③ 반대 1은 기존의 방식인 심사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 즉 추첨 방식을 반대하면서 주로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02 찬성 1이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라고 말한 것에서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반대 2는 찬성 1의 의견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 사례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았다.
- ② 반대 2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그 진술 내용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상대측인 찬성 측이 진술한 내용은 새로운 모집 방식에 관한 것이다.
- ③ 찬성 1이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상대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⑤ 토론 전체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둘 다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발언하지 않았다.

03 이 토론의 논제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이다. 반대 측은 이 논제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㉔의 추첨 방식이 아니라 ㉕의 심사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찬성 1의 첫 번째 발언 중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찬성 1의 첫 번째 발언 중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반대 2의 첫 번째 발언 중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반대 1의 첫 번째 발언 중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농산물 가격 문제와 관련해 시청 측은 회사 측과 생산 농가 주민들이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시청 측과 회사 측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시청 측)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협상 당사자인 회사 측과 시청 측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또 한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이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라 볼 수 있다.
- ② 회사 측과 시청 측에서는 지역 주민 채용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 이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서 5년 후 채용 인원을 현재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자는 의견으로 서로 타협하고 있다.
- ③ 시청 측에서는 처음에 현재 예상 인원의 3배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해 주도록 요구했다가 상대가 제안한 '5년 뒤 두 배가 되게 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가공 식품 원료를 해당 지역의 농산물로 구입해 주도록 요구하여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 ⑤ 회사 측은 협상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부터 다루려고 하였지만, 시청 측은 그 이전에 하천 오염 및 악취와 같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다루자고 하였다.

05 회사 측은 공장 이전을 바라고 있으므로 ㉠의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에 해당한다. 또한 ㉡은 시청 측의 제안을 일단 거절한 후 그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뒤에 이어진 말이므로, 이 제안에서 더 양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은 회사 측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 역시 시청 측의 요구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둘 다 회사 측의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 ② ㉠에는 회사 측의 입장만 담겨 있고, ㉡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회사 측의 수용 범위를 나타낸 발화이다.
- ④ ㉠은 회사 측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드러낸 것으로 관계 개선과는 관련이 없고, ㉡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한 발화이다.
- ⑤ ㉠은 의견 차이가 드러나기 이전 자기의 의견을 드러낸 발화이고, ㉡은 이미 의견 차이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한 발화로 탐색과는 관련이 없다.

06 회사 측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의 제안으로 회사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면서 시청 측에서는 일자리 확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시청 측의 제안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므로, 시청 측에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 제안이며 회사 측에서도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다.

오답 풀이

- ① 두 제안 모두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④ 두 제안 모두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다.
- ⑤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도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제안들이다.

10 | 문학과 삶

(1) 광야/신의 방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76~178쪽

01 ① 02 ④ 03 ④ 04 초인 05 ④ 06 ③
07 ⑤ 08 내 몸속의 방

01 4연의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서 화자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2연의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 3연의 '부지런한 계절과 같은 표현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각각 산맥의 형성 과정, 시간의 흐름을 드러낼 뿐 화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 ⑤ 1연에 의문문이 사용되었으나, 생명의 기적조차 없던 광야의 원시성을 강조한 것이지 대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02 '매화 향기'는 절개와 의지를 상징하므로, 매화 향기가 홀로 은은히 퍼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는 광야가 닭 우는 소리(생명의 기적)조차 없던 시간에 생긴 신성한 공간임을 제시하였다.
- ② 2연에서는 산맥들이 생겨날 때에도 침범하지 못했을 정도로 광야가 신성한 공간임을 말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1, 2행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 뒤 이어서 문명(큰 강물)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었다.
- ⑤ 5연에서 화자는 밝은 미래를 이끌어 줄 초인이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03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이상적 상황, 곧 조국 광복을 이루려 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초인'은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줄 지도자 또는 미래 역사의 주인공(후손)을 의미한다.

05 실제 전달하려는 의도와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은 반어법인데, 이 시에서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돼지와 통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인간의 똥을 먹는 돼지, 돼지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 자라나는 보리 등을 통해 생명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 ③ '-지요', '-군요' 등의 부드러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통시와 편리성·효율성만이 드러나는 변수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

06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된다는 부분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④ 화자는 배설물을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07 ㉠의 '변소'는 문명국의 지표로서 편리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드러내지만, 나머지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08 화자는 똥 누고 먹는 일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통시'와 사람의 몸을 유사하게 보고 있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182~183쪽

- 01 ③ 02 | 예시 답 | '가난한 노래의 씨'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희생 의지를 의미하고, '초인'은 그것을 이어받아 조국 광복을 이루어 낼 미래의 영웅을 의미한다. 03 ④ 04 ④ 05 ①
06 ① 07 ① 08 ④ 09 | 예시 답 | 통시는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변소는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다.
10 ①

01 '끊임없는 광음'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빛과 어둠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광음'은 햇빛과 그늘이라는 뜻의 한자가 결합해 '시간, 세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광야는 세상이 생겨날 때 생긴 곳으로 아주 오래된 곳이다.
- ② 광야는 산맥조차 침범하지 못한 신성한 공간이다.
- ④ 일제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눈' 내리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심겠다고 하며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 ⑤ 현재 화자가 '노래의 씨'를 심으면 천고의 뒤에 '초인'이 나타나 그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02 화자는 일제의 강점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의 씨’를 심으며 자기를 희생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천고의 뒤에 오는 ‘초인’에게 그 노래(의지)를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초인이 화자의 이상을 실현 시킬 존재로, 민족을 구원할 영웅임을 뜻한다.

03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한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닭’, ‘산맥’, ‘바다’, ‘매화(향기)’ 등 자연물을 이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부사인 ‘차마’를 통해 광야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라’, ‘-리’ 등의 비슷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각 연은 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1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04 현재 광야는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화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좌절하거나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상이 실현될 미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 ③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극복한 역사나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05 ‘큰 강물’은 역사, 문명을 의미한다. 세월의 흐름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는 시구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오답 풀이

- ② ‘광야’는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땅을 의미한다.
- ③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로 볼 수 있다.
- ④ 생명의 기적조차 없던 원시 시대에 광야가 생겼음을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 ⑤ 일제 강점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지금 눈 나리고”로 표현하였다.

06 상생과 부드러움,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생명의 이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요’, ‘-군요’, ‘-테요’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문체로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 ② ‘통시’와 대조되는 ‘변소’라는 소재를 제시했을 뿐 그 둘을 통합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해 깨달음을 주는 표현은 역설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④ 일반적으로는 배변 장소로 여기는 곳을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 특정 공간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였으나,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⑤ 이 시는 산문시로 행의 구분은 없지만 연은 구분되어 있는 시이다.

07 2연의 마지막 부분에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긴 제 주도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였으며, 화자는 통시에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제목 ‘신의 방’은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통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겼다는 것이지 돼지를 신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다.

08 음식물 찌꺼기는 큰 독에서 제힘으로 다시 빛나는데, 이렇게 발효된 다음 돼지의 먹이가 되므로 생명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

오답 풀이

- ①, ②, ③ ‘인간이 버린 음식물, 인간의 배설물 → 돼지 → 돼지의 배설물 → 보리(밭) → 인간의 음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성이 나타난다.
- ⑤ 1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똥에는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다고 표현하였다.

09 이 시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태적 삶의 소중함’ 등이다. 이 시에서 ‘개량된 변소’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공간이지만 ‘통시’는 인간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자연의 일원이 되는 공간이다.

10 ㉠와 ㉡, ㉢는 문명의 표상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와 대조된다. ㉣는 생명이 순환되는 공간이고 ㉤는 그런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로, 둘 다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다.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본문 실력 쌓기

본문 186~202쪽

-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 예시 답 | 농민 쫓겨 대회에 가기 전날 이장이 따로 황만근에게 참석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07 ② 08 ②
 09 | 예시 답 | 이장이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10 ① 11 | 예시 답 | ㉠은 황만근을 조롱하는 말이고 ㉡은 황만근을 효자로서 인정하는 말이다. 12 ①
 13 ③ 14 ① 15 ⑤ 16 | 예시 답 | 황만근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17 ③ 18 | 예시 답 | 황만근은 공평하고 약자를 배려하였다. 19 ⑤ 20 ② 21 ②
 22 ③ 23 | 예시 답 | 입맛이 까다로운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자주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24 | 예시 답 | 황만근은 공짜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시고 아무 곳에서나 잤기 때문이다. 25 ④ 26 ④ 27 ② 28 ③
 29 | 예시 답 | 농사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며 체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0 ④ 31 ⑤ 32 | 예시 답 | 황만근과 아들이 일반적인 부자지간과는 다르게 대화하는 것을 듣고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33 | 예시 답 | 마을 회관 모임에서 나오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34 ⑤ 35 ① 36 ④ 37 ③ 38 | 예시 답 | 위험하고 힘든 일에 황만근을 앞세우기 위해서이다. 39 ⑤ 40 ④
 41 ④ 42 ⑤ 43 | 예시 답 |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44 ④ 45 ⑤ 46 ① 47 ④ 48 ⑤ 49 ④
 50 | 예시 답 | 황만근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51 ⑤ 52 | 예시 답 | 황만근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 53 ①

- 01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쓰인 작품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
- 02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현장감과 사실감을 살리면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 03 이장은 마을의 이웃인 황만근이 실종되었는데도 황만근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를 중시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04 이장과 민 씨의 대화를 통해 이장이 황만근에게 농민 쫓겨 대회에 참석하도록 특별히 권하기는 하였으나 이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말한 것이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람이라고 밋밋이나 ~ 안 보이더라니까.”에서 이장이 황만근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장도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며, 술을 먹고 어디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③ 황만근이 전날 열린 쫓겨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 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 ⑤ 민 씨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까닭을 따지는 어조로 이장에게 묻자, 이장이 “이 사람이 뭐라 키는 기라. ~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라고 답하는 데서 이장이 민 씨를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다.
- 05 황만근을 ‘반근’이라고 부르고,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서 평소 황만근을 모자란 인물로 여기면서 얄잡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06 황만근은 이장의 강권으로 농민 쫓겨 대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민 씨가 이장에게 따지듯 묻게 된 것이다.
- 07 이 부분에서는 주로 민 씨와 이장의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 08 이장은 황만근에게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경운기를 타고 가라고 했으면서 자신은 차를 타고 간 것에 대해, 자신은 할 일이 많아 그랬던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 09 이장은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끌고 농민 쫓겨 대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으나 본인은 차를 타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뒤 황만근의 실종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따져 묻는 민 씨를 ‘반동가리’라고 하며 모욕하였다.
- 10 황규수는 황만근이 평생 씻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온천에 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민 씨는 쫓겨 대회 때 황만근을 본 사람은 없는지 묻고 그가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갔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로 보아 민 씨는 황만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던 중 황만근이 어머니를 위해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실종됐을 가능성이 생기자 황만근을 조롱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에 황재석은 황만근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황만근이 효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 12 황만근의 아들이 말한 황만근의 전날 밤의 행적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 ㉡, ㉢, ㉣은 모두 황만근의 어머니를 가리키지만 ㉤의 '어른'은 황만근의 실종 때문에 평상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가리킨다.

14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 크게 관심도 없고 걱정도 하지 않았지만,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에게 황만근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직접 마을 사람들을 모아 황만근의 행방을 묻고 있다.

오답 풀이

- ㉠ 마을 사람인 황재석이 '황만근'을 효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의 아들들을 효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 황재석은 황만근이 고등어를 사러 갔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효자 났다고 빈정거리는 이장의 말을 듣고는, 황만근이 효자는 진짜 효자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가 안심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 가족들이 황만근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황만근이 가족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 ㉣ 황만근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민 씨이다.

15 민 씨는 도시에서 살다 이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으로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인물이다.

16 “그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라는 서술에서 황만근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곧 알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황영석은 분노 푸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 즉 만근이가 있었다면 자기에게 돈을 백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돈을 벌기 위해 분노를 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 황만근은 여씨 노인 같은 약자들에게 거름을 더 자주 가져다주었지만 황영석은 자기가 푼 분노를 자기 눈에 가져다가 먼저 뿌렸다.
- ㉡ 황만근은 마을의 굶은일을 하면서 군말을 하지 않았지만 황영석은 돈을 백만 원을 쥐도 안 한다고 말하며 투덜거리고 있다.
- ㉢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황만근은 마을의 굶은일을 벉글벉글 웃으면서 군말 없이 했지만 황영석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18 [A]에서는 황만근이 퍼낸 분노를 마을 공통 분노장에서 익힌 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고, 혼자가 된 노인들과 같은 약자에게는 더 자주 거름을 주었다고 하였다.

19 ㉠은 황만근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황만근에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은 황만근 같은 바보조차 알 정도로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20 황만근은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한 끼에 밥상을 두 번이나 차리면서도 자신은 상도 없이 밥을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아들이 가사를 잘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 주고 함께 살았다.
- ㉡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배 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다.
- ㉢ 황만근은 어머니, 아들에게 따로 상을 차려 주면서도 본인은 상 없이 밥을 먹었고, 가족을 위해 음식 재료를 구해 오고 요리를 했다.
- ㉣ 황만근의 어머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21 마을의 굶은일은 황만근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

22 황만근이 음식을 잘 만들기는 했지만 음식을 팔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3 한 끼마다 두 번씩 상을 차리고 식성이 까다로운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음식을 하다 보니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시킬 줄 알게 된 것이다.

24 술을 좋아하는 황만근은 공짜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기면 꼭 고꾸라지도록 마셨는데 그 뒤에 황만근을 데려갈 사람이 없는 데다 마당이나 길옆을 가리지 않고 자기 때문에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부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25 황만근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할 황재석이 오히려 황만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반하장(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격으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
- ㉡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
- ㉢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으로, 형편이 좋을 때 더욱 힘을 더한다는 뜻.
- ㉣ 결초보은(結草報恩):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

26 황만근이 매일 관리를 해 윤기가 흐르는 것은 황만근의 집에 있는 연장들이다.

27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울 수도 있게 되었다.”에서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말투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A]가 아니라 결말 부분에서 민 씨가 쓴 묘비명에 황만근을 예찬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 ③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내려와 있었다.”에서 배경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민 씨의 정서를 보여 줄 뿐 글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 ④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중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들의 태도가 드러나지만 이는 웃음을 유발할 뿐 둘의 친밀한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A]는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28 황만근 아들의 “니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다. 제발 체면 좀 지키라.”라는 말에서 황만근이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도 체면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9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마 그마이지. 남 쳐다볼 기 뭐 있노.”라는 황만근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0 황만근이 술주정을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술을 고꾸라지게 먹는 것은 술주정으로 볼 수 없고, 동네 남정네들이 술판을 벌이는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이 무량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술판에 끼지 못한 것은 아니다.
- 31 황만근은 남을 잘 보살피고 본인은 돌보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 32 민 씨는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는 아들과 ‘아들님’이라고 아들을 부르며 비굴하게 구는 황만근의 특이한 대화를 듣고 그들 부자지간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 33 마을 회관에서는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임이 열린 것이지만 황만근은 오직 막걸리를 마시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34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야.”라는 말을 통해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5 ㉠은 ‘남에게 진 빚.’이라는 의미의 ‘부채’와 ‘손으로 흔들여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이라는 뜻의 ‘부채’가 발음이 같다는 점을 활용하여 언어유희를 하였다. ㉠에서도 거리를 뜻하는

‘오 리’와 ‘오리나무’의 ‘오리’가 발음이 같다는 점을 활용하였으므로 ㉠과 같이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유사 음운을 반복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 ④ 인물의 외양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 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 36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모임을 가졌던 날의 분위기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농민들이 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임이 시시덕거리며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 만큼 부채를 진 농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민 씨처럼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빚을 갚지 못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하였다.
 - ⑤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하였다.
- 37 이장은 총궐기 대회 논의를 위한 자리가 끝난 다음에, 황만근만을 붙들고 그를 치켜세우며 그가 경운기를 끌고 집회에 참석하도록 강권했다.
- 38 [A]는 경운기를 끌고 오랜 시간 위험한 국도를 가야 하는 상황에 순진하고 말 잘 듣는 황만근을 앞세우려고 한 말이다.
- 39 황만근은 다음 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궐기 대회에 갈지 말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 거리가 먼 것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았다.
- 40 이장은 경운기로 국도를 행진하면서 한나절이나 운전해서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라는 어려운 지침을, 어수룩한 황만근에게만 강조하여 당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민 씨가 나타나자 이야기를 중단한 것이다.
- 41 민 씨는 황만근과 함께 걸어가다가 황만근에게 관심이 생겨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있다.
- 42 제목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 씨가 황만근에게서 들은 말 중 인상적인 부분은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43 황만근은 민 씨와 나눈 대화에서 농사꾼은 빛을 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드러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소자본, 노동 집약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44 민 씨가 들은 황만근의 말을 제시한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바보라고 부르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황만근이 삶의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음이 드러난다.
- 45 황만근은 기계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너무 많은 기계를 갖추고 쓰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46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고, 그 덕에 황만근은 빛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 47 황만근은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마 그마이가?”라고 하면서 농약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료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 48 ‘전(傳)’은 주로 앞부분에서 인물의 행적을 다루고, 뒷부분에서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 49 황만근이 술을 좋아하는 천성을 지녔다고 했지만 황만근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므로 술 때문에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 50 민 씨는 묘비명을 쓰면서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민 씨가 황만근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51 이 글의 결말에서는 황만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 황만근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그 원인을 지적하여 비판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이 농민 경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제시되고, 황만근에 대해 예찬하는 내용도 제시된다.
- ② 경운기가 선생을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지켜 주지 못했다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제시하였다.
- ③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에서 설의 법이 사용되었다.

④ ‘아아’ 등 감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52 민 씨는 ‘선생이 살았다면’이라고 가정하 뒤 그랬을 경우 황만근이 난세의 흑염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 53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했지만 민 씨가 생각할 때 황만근은 인품이 높고 훌륭하여 그 경지가 높은 인물이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206~209쪽

- 01 ④ 02 ② 03 ⑤ 04 | 예시답 | 중심 사건을 처음에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05 ⑤ 06 ④
- 07 ⑤ 08 | 예시답 | 황만근이 동네의 굶은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09 ③ 10 ④ 11 ② 12 | 예시답 | 인상적인 부분은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01 사투리와 비속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사실감, 현장감, 토속적·향토적 정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쓰여 있어,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한다.
- ② 제시된 부분은 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의 처음 부분은 황만근이 없어진 사건의 발생 과정이 아니라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사건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02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에서 황만근은 평생 단 한 번 외박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이 사라진 이유를 추측하고 있을 뿐 누구도 분명하게 그 원인을 알지는 못하고 있다.
- ③ 황만근을 보았냐는 민 씨의 물음에 자리에 모인 황씨들이 모두 고개를 흔들었던 것이나 “사람이라고 밋밍이나 ~ 안 보이더라니까.”라는 말에서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농민들이 황만근을 보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이라는 표현과 (다)의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에서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쫓겨 대회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이장의 말에서 민 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음을 알 수 있다.

03 민 씨가 이장에게 황만근의 실종 원인을 물어보면서 황만근에게만 경운기를 타고 가도록 강권한 것에 대해 추궁하기는 하지만 이장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다)의 이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민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이장이 전날 황만근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추궁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다.
- ③ 이장은 황만근이 술을 먹고 어디선가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실종 때문에 모이느라 소를 챙기러 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할 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민 씨는 황만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술 먹고 어디서 자고 있을 것이라는 이장의 말에서 황만근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중심 사건을 소설 첫 부분에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05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고 그가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황만근에게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내용에서 황만근은 다양한 일에 재주와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에서 황만근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희한할세, 바보가.”라고 말하며 바보라고 무시하였다.
- ③ (다)의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A]의 앞부분에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의 입맛이 까다로웠고 황만근이 이들을 극진히 보살피며 오랫동안 자주 요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7 (다)에서 황만근은 공이 있을 때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에서 황만근이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제공해 준 사람의 공을 높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08 황만근이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황만근이 하루 사라지자 그 굶은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하루 만에 모두 그의 부채를 알게 된 것이다.

09 황만근은 농사꾼이 빚을 저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으므로, 빚 지지 않고 성실하게 노동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농민 부채를 늘리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0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에서 농민들이 농약과 비료가 유해한 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를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 무슨 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맞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라고 민 씨가 쓴 부분에서 당시 귀농하였다가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1 외지에서 이사 온 민 씨는 황만근이 살고 있는 곳의 마을 사람들과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황만근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해 높게 평가하였다.

오답 풀이

- ⑤ 황만근은 오래되고 낡은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가 추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를 그가 마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2 (가)는 황만근이 죽기 전 날 민 씨에게 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으로, 서술자는 민 씨가 들었던 황만근의 말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에 해당하는 부가 설명은 요약적으로 괄호 안에 제시함으로써 황만근의 소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3)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본문 실력 쌓기		본문 212~214쪽	
01 ④	02 ④	03 속상함, 미안함	04 예시 답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쓰레기)가 생기면 봉투에 넣지 않고 따로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05 ①	06 ②	07 ⑤	08 예시 답 고양이가 새끼들을 자랑할 겸 감사와 친애의 표시도 할 겸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9 ⑤	10 ①	11 ⑤	

- 01 글쓴이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해집는 것을 싫어할 뿐 자신이 개를 좋아하는 반면에 도둑고양이를 싫어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글쓴이는 오히려 고양이가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02 땅 집에서는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내어놓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서 쓰레기봉투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글쓴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03 깔끔하게 묶어 놓은 쓰레기가 파헤쳐져 속상하고, 쓰레기봉투를 수거했을 미화원 아저씨께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04 땅 집으로 이사 온 뒤 쓰레기도 깔끔하게 내어놓고 싶었던 글쓴이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해집자 고양이가 먹을 만한 것을 따로 내어놓기로 하였다.
- 05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나 미안함을 느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6 글쓴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을 뿐, 고양이를 위해 심터를 마련해 주지는 않았다.
- 07 글쓴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재미를 느끼던 중 고양이 새끼를 보고 감탄한다. 또한 고양이가 자신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동을 느끼나 고양이가 적의를 드러내자 놀라고 무서움을 느낀다.
- 08 글쓴이는 자신이 먹이를 주었던 고양이가 새끼고양이들과 함께 나타나자 자신에게 보여 주고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반가워하였다.
- 09 이 글은 자신의 경험과 삶을 성찰한 후 얻은 깨달음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수필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10 글쓴이는 우리가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길들이기 꺼려 한다고 말했을 뿐,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오해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② “흔히 고양이는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 생각하여 길들이기를 꺼려한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 ③ “어쩌면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것조차 오해일 수도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녀석은 챙겨 주는 것보다 스스로 ~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고양이에게 화자가 다가가자 적의를 보인 고양이의 태도에서 화자가 고양이를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11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양이가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자유와 자존심을 담보로 해야 하는, 죽느니만 못한 짓일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소단원 실력 다지기		본문 218~219쪽	
------------	--	-------------	--

01 ④	02 ⑤	03 ⑤	04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
05 ④	06 ⑤	07 ⑤	08 예시 답 고양이는 자유와 자존심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01 이 글은 글쓴이가 쓰레기봉투를 해집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 경험에서 느꼈던 정서와 성찰했던 내용을 쓴 수필이다.

오답 풀이

- ① 고양이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쓴 글은 아니다.
- ②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다룬 수필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 ③ 글쓴이가 겪은 사실적 경험만을 다루고 있을 뿐 허구적인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 ⑤ 이 글은 글쓴이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 아니라,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깨달은 바를 자유롭게 적어 내려간 글이다.

02 ‘아파트에 살 때도 그러했지만’이라는 구절에서 아파트에 살 때도 쓰레기봉투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쓰레기봉투를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 ② ‘수거차가 오는 날’이라는 표현에서 쓰레기 수거 날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고양이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지지 않도록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물쓰레기는 접시에 따로 담아 내놓았다.
- ④ 식구들이 잘 안 먹는 생선 조림이 생기면 고양이를 위해 냄비째 쏟아 버리기도 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03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파헤쳤기 때문에 글쓴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시에 고양이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내놓았던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글쓴이의 집에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 찾았다.
- ③ 고양이는 먹이를 많이 주어도 과식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나눠 먹었다.
- ④ “동네에는 여러 종류의 도둑고양이가 있었지만 ~ 상당히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었다.”에서 글쓴이의 집에 오는 고양이도 도둑고양이임을 알 수 있다.

04 글쓴이는 쓰레기 버리는 일에서도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파헤쳐지는 것을 알고 속상해했다. 글쓴이는 이를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였다.

05 이 글은 고양이와 글쓴이의 갈등을 다룬 글이 아니라 글쓴이가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해 오해했던 경험을 다룬 것이므로, 대상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②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친근감을 느끼던 글쓴이에게 고양이가 공격적인 적의를 드러냄으로써 반전이 나타난다.
 - ③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⑤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그 과정에서 느낀 정서,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의 구조로 글을 전개했다.
- 06** 글쓴이는 고양이와 새끼들을 보자, 자신에게서 잘 언어먹은 어미 고양이가 해산을 해서 반질반질 잘 기른 새끼들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자신이 자랑스러움을 느낀 것은 아니다.
- 07** “너석은 챙겨 주는 것보다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뚫고 찾아내는 게 훨씬 스릴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고양이의 적의를 경험한 후 글쓴이가 이에 대해 성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에 해당한다.
- 08** 글쓴이는 고양이에 관해 오해했던 것들을 성찰하며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동물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단원 실력 향상하기

본문 220~225쪽

- 01 ⑤ 02 ④ 03 ② 04 | 예시 답 |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 05 ④ 06 ⑤ 07 | 예시 답 | 이장은 황만근 앞에서는 황만근을 칭찬하지만 황만근이 없을 때는 바보라고 무시하는 결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08 ④ 09 ③
- 10 | 예시 답 | 공동체를 위한 봉사, 타인을 위한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 11 ⑤ 12 ③ 13 ① 14 ② 15 ③
- 16 | 예시 답 | 고양이 가족에게 다가갔다가 날카로운 적의에 놀람.
- 17 ②

01 (가)에서는 ‘매화’, (나)에서는 ‘통시’라는 전통적인 소재가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광야’, (나)는 ‘통시’라는 특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② (가), (나) 모두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③ (가)는 ‘-라’, ‘-랴’, (나)는 ‘-지요’, ‘-데요’ 등의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거울로 나타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02 화자는 나라의 높은 분이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친 사실만 언급했을 뿐 사람들이 ‘통시’를 멸시하는 세태를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화자는 통시에 담긴 지혜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에 나타난 생명 순환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통시에서 돼지는 인간의 배설물과 발효된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았다.
- ② 인간이 배변을 하는 곳에서 돼지가 함께 자라던 곳이 통시이다.
- ③ 음식물 찌꺼기와 설거지물은 큰 독에서 제힘으로 다시 빛나며 발효했다.
- ⑤ 1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는 똥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03 ‘초인’은 광야가 생겨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화자가 지금 노래의 씨를 뿌리면 그 의지를 이어받아 미래에 조국의 이상을 실현시킬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① ‘광야’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 ③ 화자는 조국 광복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이것을 노래의 씨를 심는 상징적 행위로 나타내었다.
- ④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매화’는 전통적으로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매화 향기 홀로 아

득하니'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4 이 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는 가치를 통시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내었다.

05 (마)에서 민 씨의 황만근의 삶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로 보아 등장인물인 민 씨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황만근의 죽음에 대한 다른 등장인물의 인식은 제시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감, 현장감을 높이고 토속적·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② 황만근이 사라졌다는 중심 사건을 제시하며 소설을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황만근이 사라진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그의 행적을 제시하면서 내용이 전개되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⑤ 이 소설은 전반부에서 황만근의 행적을, 후반부에서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어 '전(傳)'의 형식을 취한 현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06 아들은 아버지인 황만근을 격의 없이 대하고 있고 이 부자간의 관계는 역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들이 황만근을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 때문에 모여야 했던 데에 불만을 표하며 황만근을 걱정하기보다 소가 밥을 굶는 상황을 더 걱정하고 있다.
- ② (나)에서 황규수는 황만근이 평생에 씻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며 조롱하고 있다.
- ③ (마)에서 민 씨는 황만근을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다)에서 동네 아이들은 황만근에게 시비를 물으러 갔고 그러면 언제나 분쟁이 종식되었다고 하였다.

07 (출제 의도 및 해설) 이장의 겉과 속이 다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이장은 황만근이 실종되자 그를 바보라고 무시하며 그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지만 (라)에서 황만근에게 말할 때는 그를 상농사꾼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이로 보아 이장은 황만근을 무시하는 속마음과 달리 필요에 따라 그를 칭찬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황만근에 대한 이장의 지칭과 태도를 대조하였고, 이를 통해 이장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4점
황만근에 대한 이장의 지칭과 태도만 대조하였거나, 이장의 성격만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08 <보기>의 “내가 그랬던 인물들은 우리 인간의 복잡함과 미묘함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랬던 인물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에서 작가가 그려 낸 바보형 인간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황만근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주변에도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만근과 같은 인물이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다.

09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 하루 만에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황만근이 동네의 굶은일을 모두 맡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실종되자 굶은일을 하는 이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오답 풀이

- 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황만근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 ②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 ④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실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황만근을 있으나 마나 한 존재, 바보로 여겼기 때문이다.
- ⑤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민 씨도 황만근이 사라졌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 씨의 입장은 황만근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쪽에 가깝다.

10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항상 앞서서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지만 그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11 술을 '땅의 젖'으로 비유하였지만, 황만근은 술에 취해 경운기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경운기 사고가 나자 그 옆에서 경운기를 지키며 술을 마시고는 잠이 들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황만근이 농민 쫓겨 대회에 참가하려 가는 과정, 돌아오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 과정 순으로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② 서술자는 황만근을 '난세의 흑염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로 비유하며 그의 인격을 높게 평가하였다.
- ③ 경운기는 황만근의 아내가 사준 것으로 황만근이 아끼던 것이고, 술은 황만근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다.
- ④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 주지 않았다."에서 경운기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제시하였다.

12 이 글에서는 황만근의 삶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봉사, 이타적 삶의 자세라는 가치를 드러낸다. 황만근은 동네의 굶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바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은 말은 일마다 잘 해내었다.
- ② 황만근은 죽은 뒤 바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 말이 짧고 어눌해서 바보라고 불렸다.
- ④ 황만근은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음으로써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온 연륜으로 지혜로워진 것이다.
- ⑤ 이미 날이 어두워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 그간 여러 번 고치면서 사용해 왔던 경운기가 크게 부서진 상태임을 고려할 때, 황만근을 바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13 이 글은 글쓴이가 먹이를 주던 고양이와 자신에게 길들여졌고, 새끼와 함께 감사의 표시를 하러 왔다고 오해한 경험과 그 일을 겪으며 얻은 깨달음을 쓴 글이다.

오답 풀이

- ② 이 글은 수필로 실제 경험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는 없다.
- ④ 이미지를 활용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글은 시와 같은 운문이다.

14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글쓴이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자신에게 감사와 친애의 표시를 하러 온 것이라고 오해하였으나, 고양이가 적의를 보이며 공격 태세를 취하자 놀라고 무서움을 느꼈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도둑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도록 먹이를 따로 준 것일 뿐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 ③ 글쓴이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닭고기나 생선에 살을 붙여 남긴 것이다.
- ⑤ 고양이가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서 먹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은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풀린 다음에 깨달은 내용이다.

15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 쓰기의 과정을 되새기기 위한 문제이다. 모든 글쓰기 과정에서는 고쳐쓰기를 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글감을 떠올리는 과정으로, 고양이에 대해 오해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 ②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을 떠올린 것이다.
- ④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⑤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글쓴이가 고양이와 관련해 겪었던 내용을 떠올려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16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은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에서 오해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생각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하는 반전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 문제는 이 글의 구조와 반전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고양이가 적의를 표출한 상황을 쓰되, 명사형으로 종결하였을 경우	4점
황만근에 대한 이장의 지칭과 태도만 대조하였거나, 이장의 성격만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유사 정답 적의 표출 대신 공격 태세를 취했다는 내용을 제시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17 자기를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오답 풀이

- ① 소설을 쓰는 의의이다.
- ③ 설명문을 쓰는 의의이다.
- ④ 논설문 또는 중수필을 쓰는 의의이다.
- ⑤ 시를 쓰는 의의이다.

수능 맛 보기						본문 226~232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⑤	12 ③	

01 (가)의 화자는 고향으로 향하는 나룻가에서 종일 서성거리면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화자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고향 집 마당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면서 낯설어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고향의 모습은 간간히 잔나비(원승이)가 울고 무덤이 있는 처량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조상’은 무덤 속에 들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공간에서 조상의 권위가 지속된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에서 화자가 찾은 고향 집은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이지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③ (가)에서 화자는 낯선 행인의 손을 쥐며 따뜻함을 느끼고자 하고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고향 집과 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세상의 인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④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처지를 통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고, (나)에서는 농민이었다가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아버지의 고달픈 삶에 대한 안타까움, 안쓰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피폐해져 버린 고향을 바라보며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며, (나)의 화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공장 노동자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 농촌의 변화를 희망하는 태도는 드러내지 않았다.

02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는 화자로, ㉠은 장꾼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여 화자 자신의 안타까움과 설움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겨울 동안 얼어 있던 얼음장들이 봄이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 녹아 떠내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그려 내고 있다.
- ②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는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이를 의문형으로 나타내었으므로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④ 자신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마치 모르는 사람을 말하듯이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객관화하여 지칭하였다.
- ⑤ 고향 집 안의 모습을 가족도 없고 냉기가 도는 쓸쓸한 공간으로 묘사하여 고향을 낯설어하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와 화자는 둘 다 고향을 잃은 인물들

로, 화자와 주인집 늙은이가 감정을 교류한다고 해서 귀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전나무가 우거지고 누룩 뜨는 냄새가 나는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찾아간 고향 집은 화자를 위한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 존재하는 곳이고 화자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므로,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④ 화자를 위해 차가운 방에 군불을 피워 온기를 돌우고 가난한 살림에도 오리를 잡아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려는 모습에서 화자를 위한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기억과는 다르게 변해 버린 고향에 가지 못한 채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의 화자는 고향 집을 낯설게 느끼고 있으므로 (가), (나) 모두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04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 구어체와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의 실종을 둘러싸고 민 씨와 이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물의 행위를 과장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 ② 황만근이 실종된 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으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주로 민 씨와 이장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면서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⑤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로, 장면에 따라 서술 시점이 바뀌지 않으며 특히 제시된 지문에서는 장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설 마지막 부분에 등장인물인 민 씨가 황만근을 평가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5 민 씨가 황만근의 실종과 관련하여 이장을 추궁하자, 이장은 민 씨가 도시에서 망하여 귀농한 외지인이라는 것을 들어 그를 공격하면서 무시하고 있을 뿐 경제적 지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이장은 경운기를 타고 오는 것이 쫓겨 대회에 방침이었음을 내세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민 씨는 지도자가 술선수범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황만근은 경운기를 타고 가게 했으면서 자신은 트럭을 타고 간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이장은 쫓겨 대회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속도가 느린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은 무리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④ 민 씨는 자신을 '반동가리'라고 부르며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는 이 장의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06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민 씨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황만근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만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반동가리, 즉 반편이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농민은 빛을 지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
- ② 기계화 영농 정책을 추진하다 농민들이 결국 빛만 지게 되고, 이 때문에 쫓겨 대회까지 열게 되는 모습에서 체계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라는 민 씨의 말과 결국 방침을 지키던 황만근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④ 농가 부채 탕감을 촉구하는 쫓겨 대회를 여는 상황이나 <보기>의 집집마다 바뀌 달린 기계를 빛으로 샀다는 황만근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7 이 글에서는 특히 부락 사람들과 웅점이가 하는 말에 충청도 방언과 구어적 표현이 사용되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서술자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현재의 '나'가 과거 어린 시절 지켜보았던 '웅점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반복 교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 관점에서 웅점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묘사가 활용되지 않았다.
- ⑤ 이 글은 웅점이와 관련된 일화를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그려 나가고 있다.

08 장돌뱅이 충각들이 웅점이에게 눈독을 들였지만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아닌 것 같았다는 말과, 웅점이가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신분이 큰 허물이었다고 하였으므로, 가난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혼인을 망설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의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라는 걱정 어린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웅점이는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고, 또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징발될 만큼 일을 아무지게 잘하였다고 하였다.
- ④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통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라는 표현에서 근동 사람들이 웅점이의 뒤통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관촌 사람들이 전재민촌 사람들을 냉대했음에도 웅점이는 그렇지 않았고, 특히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09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 웅점이처럼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했던 것이나, 근동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내력을 훤히 아는 것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웅점이의 신분을 따져 혼사를 꺼리는 것에서 계층 간 위계 의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전재민촌은 작은 부락이었다가 전재민들이 들어오면서 커진 마을로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으로 서툰 장사와 도둑질 등을 하며 살았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는 내적 결속력이 높은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③ 전재민촌은 처음에는 작은 부락이었지만 전재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 ④ 웅점이의 신분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촌은 신분제의 계층적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공간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공간이라 볼 수 없고, 전재민촌 역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공간인지 알 수 없다.
- ⑤ "전재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전재민촌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관촌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계층 간 위계 의식이 지배하는 공간에 속한다.

10 웅점이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술자가 웅점이를 선택한 이유는 주체 의식이라는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A]는 '인물'에 해당하는 웅점이가 관촌 사람들이 꺼리던 전재민촌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잘 대해 주는 모습을 담고 있어 인정 많은 인물의 특징을 보여 주는 주요 행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③ 서술자는 웅점이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 하면서,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지닌 인물을 몇 사람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④ 주체성이나 주체 의식 운운하던 말이 크게 유행하였지만 그러한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을 웅점이와 몇 사람밖에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데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이전까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웅점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였지만 [B]에 이르면 웅점이와 세태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어 행적 부분과는 구별되는 진술을 보여 주고 있다.

11 학생은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말한 뒤, "이 푸른 잔디는 바삭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였다.”라고 생각을 이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연두색의 잔디 싹, 즉 푸른 잔디이다.

오답 풀이

- 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지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뎠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 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문맥상 잔디가 푸르다는 내용과 잔디가 무성하다는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푸르고’는 적절한 표현이다. ‘-지만’ 뒤에는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나 조건이 와야 하므로 ‘푸르지만’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겪다’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이므로 ‘어려움에’를 ‘어려움을’로 고쳐야 한다.
- ② ‘눈에 보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뜨이다’ 또는 그 준말인 ‘띄다’를 사용해야 한다.
- ④ 접속어 앞뒤의 내용이 ‘잔디의 생명력’과 ‘시련을 견뎌.’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어 ‘그러나’ 대신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도 더’라는 의미를 지닌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이루다’는 문장 속에서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므로 문맥상 ‘꿈을’이라는 목적어를 첨가해야 한다.

학교 시험 대비 평가

중간고사 대비 문제 1회

본문 234~242쪽

- 01 ④ 02 ④ 03 | 예시답 | ㉓는 화자의 분신으로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헌신을 의미한다. 04 ② 05 ②
- 06 | 예시답 | ㉓에서 화자는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새봄을 맞은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07 ① 08 ④ 09 ③
- 10 ④ 11 ② 12 ③ 13 ③ 14 ② 15 ②
- 16 | 예시답 | ㉔는 변학도가 남원에 사또로 부임하면서 춘향이 처하게 된 시련을 의미한다. ㉕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소재는 ‘바람’과 ‘눈’으로, 춘향이 권력자의 횡포로 겪은 고통과 시련을 의미한다.
- 17 ⑤ 18 ⑤ 19 ② 20 | 예시답 | ㉑(공정 여행)에는 배려와 공존의 가치가 담겨 있다. 자신만의 편리함을 위한 여행이 아닌 지구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와의 공존을 생각하고, 여행지 주민을 배려한 여행이기 때문이다. 21 ② 22 ③ 23 ③ 24 ③
- 25 | 예시답 | 또한 제2의 기계 시대(로봇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가 도래했을 때보다 더 큰 사회적 격차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6 ②
- 27 ①

01 ㉒ ‘선행면(서운하면)’의 주체는 화자가 아닌 임이다. 따라서 ㉓은 화자와 이별하는 임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화자에 대해 임이 느낄 수 있는 서운함(못마땅함)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㉓은 임이 자신을 두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② ㉑은 임이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는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③ 임을 붙잡는다는 것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㉑은 이별을 거부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㉔에서 화자는 임에게 다시 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㉔은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2 (나)는 이별의 정한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살풀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가)에 나타나는 우리 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여음과 후렴구는 (가)에만 나타난다.
- ② (가)에서는 ‘가시리 / 가시리 / 잇고’와 같은 3음보 율격이 나타나며 (나)에서도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은 3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가)의 율격이 (나)에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의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지만 입을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반면, (나)는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고 슬픔을 인내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⑤ (가)는 임과의 이별에 슬퍼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며 이러한 특징은 (나)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과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우리 문학에서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03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1~2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말없이 진달래꽃을 입이 떠나는 길에 뿌려주면서 입을 축복하고, 3연에서는 입에게 길에 놓인 진달래꽃을 즈려밟고 가라고 한다. 이로 볼 때 ‘진달래꽃’은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자 입의 발밑에 밟히는 화자의 분신이며, 자신을 희생하며 입을 축복하는 입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㉔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한 경우	4점
㉔의 상징적 의미는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화자의 정서, 태도와 연관 짓지 못한 경우	2점
㉔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4 2연에서 화자가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떠나는 입을 축복하는 화자의 헌신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어적으로 이해하면 떠나는 입에게 자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면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자 하는 화자의 미련과 집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말없이 수용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화자는 이별로 인해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과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로 원망과 만류의 말도 없이 입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뿌린 꽃을 입에게 밟고 가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므로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화자는 입에게 ‘진달래꽃’, 즉 자신이자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짓밟으라고 하여 입의

죄책감을 유발함으로써 이별을 만류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④ 4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본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이별로 인해 화자 자신이 슬픔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입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입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표면적으로 (나)에는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고 입을 축복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반어적으로 이해하면, 화자는 이별로 인한 큰 상처와 입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입에게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즐기면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연과 경계를 나누지 않고 천연한 삶을 살아가는 고향 마을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 온 한국 문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지만 속세와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에는 자연에 은거하거나 속세와 단절된 삶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④ (가), (나)에는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의 화자는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박하고 천연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가), (나) 모두 물질적 여유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6 **출제 의도 및 해설** 시구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㉔의 앞에서 화자는 겨울이 지나고 새봄에 나타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면서 봄을 맞이한 기쁨과 흥취를 즐긴다. 그리고 ㉔에서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정서를 자연물인 ‘새’에 이입하여 ‘수풀에 우는 새’도 봄기운을 즐기면서 아양이 섞인 소리로 지저귀다고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화자의 정서를 서술한 경우	4점
화자의 정서를 적절히 서술하였으나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이를 위해 활용한 대상 중 하나만을 언급한 경우	2점
화자의 정서만 서술한 경우	1점

07 화자는 [A]에서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 삼아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은 윤선도의 <만홍> 중 2수인 ①로,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의 소박한 생활을 즐기면서 그 밖의 세속적 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안분지족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푸른 산과 흐르는 물처럼 변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끊임없는 학문 정진의 자세를 강조한 시조이다.
- ③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추운 날씨에도 은은한 향기를 띄우며 피어난 매화를 예찬한 시조이다.
- ④ 푸른 물처럼 임이 떠나갔어도 화자의 사랑은 푸른 산처럼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신을 임도 그리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서글퍼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 ⑤ '두류산'은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시조는 지리산 양단수의 절경에 감탄한 화자가 그 모습을 무릉도원에 빗대어 예찬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예찬은 나타나지만 안분지족의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나)의 화자는 고향 마을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을과 자연의 조화롭고 천연한 모습을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영상의 장면 전환은 느리고 여유롭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09 <보기>에서 (나)의 시인 박용래는 역사의 격동이나 시류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시 세계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나)에서는 시인의 세계가 드러난 고향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인이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문제보다는 향촌에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어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나)의 시인은 유년기에 대한 회상을 소재로 다루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의 1, 4연에 나타나는 고향 사람들과 마을의 모습이 시인의 유년기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잔광이 오래 머무르고 밤에 별이 많이 뜨는 것으로 '마을'이 묘사되어 우리 농촌의 정경을 떠올리게 한다.
- ④ (나)의 3연에서 '천연히'를 통해 2연의 자연과 4연의 인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사상을 집약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면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0 어사또가 변학도를 징벌하는 모습은 불의한 세력을 징벌하는 개혁 사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패한 관리 계층의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권력 교체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조선 후기에 만연했던 탐관오리의 횡포가 작품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② 전라도 남원이라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로 불릴 때 나타나던 운율감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 ⑤ 수청을 강요하는 변학도의 횡포에 죽음마저 불사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춘향의 모습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대한 당대 민중들의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본관 사또는 몽룡을 만나기 전에 춘향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춘향과 상관없이 걸인 차림을 하고 온 것을 보고 몽룡을 푸대접했을 뿐이다.

12 [A]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나 결말의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⑤ [A]에서는 변 사또와 아전들이 어사 출도에 깜짝 놀라서 엉뚱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지배 계층을 희화화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당대 민중들이 지배 계층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학적 묘사와 언어유희는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어사 출도로 고조된 극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②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려라.'에서 어순의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④ [A]에서는 ' ~ 잃고 ~ 들고(쓰고)'와 같은 문형과 4·4조의 운율을 지닌 운문체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운문적 특징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13 <보기>의 도미의 아내는 왕을 속이고 도망친 후 도미와 재회하게 되므로 ③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춘향은 스스로 재치를 발휘해 변 사또의 횡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사또가 된 이몽룡에 의해 구출되었으므로 ③은 춘향과 도미의 아내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② 춘향은 본관 사또, 도미의 아내는 왕이라는 권력자에 의해 정절을 잃게 될 상황이었으나, 정절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춘향은 죽음을 각오하고 수청을 거부했고, 도미의 아내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기회를 틈타 탈출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체념과 수용을 거부하고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 ④ 춘향은 이몽룡과 이별했다가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그와 재회하였으며, 도미의 아내 또한 왕에 의해 남편과 헤어졌다가 궁에서 도망쳐 남편과 재회하였다.
- ⑤ 춘향은 본관 사또에 의해 수청 들기를 강요받았으며, 도미의 아내는 왕으로부터 궁인이 되기를 강요받았다. 즉 두 사람 모두 본관

사또와 왕이라는 권력자의 횡포로 정절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14 ㉠은 갈등 해소의 계기이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와 상황을 서술할 뿐이므로,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없다.

15 ㉡는 암행어사의 출도에 아전들이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연실색(啞然失色)’, ‘혼비백산(魂飛魄散)’, ‘속수무책(束手無策)’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은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나타남으로써 춘향이 죽을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므로 ‘구사일생(九死一生)’, ‘기사회생(起死回生)’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경우, 또는 두 가지의 일 중 어떤 것을 먼저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
- ③ 일촉즉발(一觸即發): 한 번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 ⑤ 동분서주(東奔西走): 사방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16 (출제 의도 및 해설) 구절 및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춘향이 처하게 된 시련을 의미한다. 변학도가 남원에 사또로 부임한 후 춘향이 수청을 강요당하면서 맞게 된 위기 상황을 ‘가을’에 비유하였고, 춘향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떨어질 것으로 표현하였다. ㉡에서 춘향을 의미하는 소재는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이고 이와 대비 관계를 이루며 위기와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소재는 ‘바람’과 ‘눈’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의 소재와 그 의미를 서술한 경우	4점
㉠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의 소재와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의 의미를 밝히지 않은 경우	2점
㉠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의 소재를 제시하였으나, 소재와 ㉠의 의미를 밝히지 않은 경우	1점

17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공정 여행은 ~ 불리기도 한다.’와 같이 공정 여행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글의 글쓴이는 글의 주요 소재인 ‘공정 여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전(전기문), (나)는 공정 여행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권유하는 글이다. (나)의 경우 공정 여행을 권유한다는 목적을 지닌 글이므로 글쓴이의 의견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 등에서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글쓴이의 의견보다는 인물의 행적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 ③ (나)는 공정 여행을 알리고 권유하는 글로, 기존의 여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이 글에는 특정한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 운동주가 새벽까지 읽은 책들은 주로 문학 관련 책들이다. 문학은 그의 관심사이자 목표였다는 점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책을 읽었으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보다 즐거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백석의 시집을 구하기 어렵자 손수 베껴 필사본을 만들어 간직하는 모습에서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드러난다.
- ② 주로 문학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독하는 것으로 볼 때 문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 ③ 과제나 의무가 아닌데도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스크랩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독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안감을 대는 대신 그 돈으로 책을 사 보는 데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19 이 글은 기존의 여행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공정 여행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을 찍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공정 여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일반 여행의 문제점과 공정 여행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대상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하거나 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시간에 따라 공정 여행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기존 여행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공정 여행을 제시하고 있을 뿐, 두 대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대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 ⑤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인상 깊게 전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나 관련 기관의 조사 자료 등은 인용하지 않았다.

20 (출제 의도 및 해설)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 여행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공정 여행은 자신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여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정 여행은 지구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과 공존하려는 마음이 바탕이 된 여행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의 가치를 서술한 경우	4점
공정 여행의 가치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아 제시하였으나, 그 까닭이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	2점

21 ㉠은 새로운 풍경을 보거나 심신의 즐거움 또는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눈'을 갖고자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 여기서 '새로운 눈'은 다양한 삶의 가치와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가치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와 같은 여행이 '진정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③ 유물이나 문학 작품의 배경을 보기 위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 떠나는 여행으로 볼 수 있다.
- ④, ⑤ 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행은 심신의 즐거움이나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으로 볼 수 있다.

22 '읽은 책 소개하기' 활동은 책을 읽은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독서 내용과 감상을 종합하여 발표해 보는 활동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구성 단계에 따라 모두 요약하기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 ①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발표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 ② 발표 내용은 자신이 책에 대해 이해하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④ 발표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발표 과정에는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말하기 방법과 태도를 구사해야 한다.
- ⑤ 발표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야 책에 대한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다.

23 (가)는 다가오는 로봇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나)는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는 미래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로봇 시대 일자리 위험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나)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문제가 발생한 배경 상황을 살피고 있으나, (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로봇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로, 서로 상반된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가)는 로봇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에서는 현재 로봇이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지는 않았다.

24 (가)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보기>는 자동화에 의해 사라질 위험이 큰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가)와 <보기> 모두 새롭게 나타날 직업에 대한 탐구나 내용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 중 높은 순위의 직업 대부분이 예술 관련 직종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편리하고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기>에 제시된 직무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보면 콘크리트공, 정육원, 조립원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대부분이다.
- ④ (가)에서는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도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보기>에서도 직무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 중에 조세 행정 사무원과 같은 전문 직종이 있다는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⑤ <보기>의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의 대부분이 화가, 사진작가, 지휘자 등과 같이 의사 결정과 감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이라는 점을 통해 로봇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로봇이 모든 직종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5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산업화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보기>를 활용하여 추가할 문단에는, 일자리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산업화 시대의 도래로 나타난 사회적 격차와 사회 문제보다 더 큰 격차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산업화 시대보다 더 큰 사회적 격차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을 제시한 경우	4점
사회적 격차나 사회 문제와 같은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화 시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표현한 경우	2점

26 ㉠은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7 <보기>와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고, 최신 기술을 익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변화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나)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변화하는 로봇 시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 <보기>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 ㉢ (나)에서는 지속적인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기>에서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데에 비해 인간의 학습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 (나)의 대응 태도를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바뀌는 것에 적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보기>에 언급된 것처럼 인간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정서적 불안 등은 간과하고 있다.
- ㉤ <보기>에서는 교육, 경제, 사회적 혁신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경우 인식 변화와 노력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간고사 대비 문제 2회

본문 243~253쪽

- 01 ㉣ 02 ㉢ 03 ㉣ 04 | 예시 답 |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가)와 (나)의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고 임을 떠나보내는 반면에, <보기>의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05 ㉤
- 06 | 예시 답 | ㉢ 수간모옥(數間茅屋), ㉥ 봉두(峰頭). 화자는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07 ㉤ 08 ㉣ 09 ㉢
- 10 ㉣ 11 ㉠ 12 | 예시 답 | [A]는 '갈비'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보기>에서는 '양반'이라는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3 ㉡ 14 ㉡
- 15 ㉣ 16 ㉡ 17 | 예시 답 | 여사 출도로 당황한 수령들과 본관 사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희화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예시 답 | 글쓰기와 ㉠은 공통적으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것임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글쓰기는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에 필수적 요소라고 여기므로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은 일을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여기므로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5 ㉡
- 26 | 예시 답 | 윤동주는 '자발적 동기의 연쇄'에 따라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접 문학 관계 서적을 사 모으고, 시집을 손수 베껴 필사본을 만들며, 문학 작품을 신문이나 잡지에서 스크랩하는 등 독서 활동 자체를 즐기며, 책과 책의 내용을 연계하여 읽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27 ㉣ 28 ㉣ 29 ㉣ 30 | 예시 답 | 우리 함께 떠나자,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

01 (가)에서는 1연과 4연에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적으로 배치한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 (가)에서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리우리다'와 같이 3음보 율격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가시리/가시리/잇고'와 같이 3음보 율격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가)와 (나)가 모두 민요적 특성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가)와 (나)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 ㉢ (가)에서는 1연과 4연의 유사한 구절, '-우리다'가 반복되고, (나)에서는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증가 大平盛代(대평성대)'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가)와 (나) 모두 '애이불비(슬프지만 걸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의 자세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를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과 연결한 것은 시적 정서를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향토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시적 상황의 진실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임이 떠나는 길에 ㉔를 뿌리면서 축복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헌신과 희생, 순종을 느낄 수 있다.
- ② 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④ 떠나는 임에게 화자는 자신이 뿌린 ㉔를 조심스럽게 밟고 가라고 하는데, 이는 임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화자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㉔는 임에 대한 화자의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㉔)의 표상인 동시에, 끝까지 임에게 헌신하려는 화자의 순종(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㉔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승화(㉔)시키는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므로써, ㉔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03 (나)에서 화자는 임에게 떠나자마자 다시 돌아오라는 말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보기>에서는 이를 떠나보낸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심정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보기>는 시조로서 4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 ② (나)에서는 화자가 떠나려는 임에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라고 애달프게 물으며 말하는 듯한 어조가 나타나지만, <보기>에서는 독백체의 어조가 나타난다.
- ③ (나)는 임이 떠나기 직전의 상황이고, <보기>는 임을 떠나보낸 후의 상황이다.
- ⑤ (나)에서는 떠나려는 임에 대한 서러움을 직접 드러내면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 <보기>에는 임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뜻한 심리가 나타나 있다.

04 **출제 의도** 여러 시에 나타난 이별의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시가 문학에서 이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시적 상황을 서술하지 않고, (가), (나)와 <보기>의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3점
시적 상황을 서술하지 않고, (가), (나)와 <보기>의 화자의 태도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점

05 (가)에서는 ‘벚사름 風풍流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物물치

아一일體체어니 興흥이이 다랴소나’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몰아일체의 경치를 느끼며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공명’, ‘부귀’와 ‘단표누향’을 대비하여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화자의 인생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지만, 시어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의 1연에서 ‘같이’의 위치를 3행의 앞에 배치하여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 ‘같이’를 ‘처럼’으로 해석하느냐 ‘함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의 수식 범위가 달라진다.
- ③ (가)는 ‘흥진에V못친 본네V이내 생애V엇더호고V’와 같은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음악성을 부여하고, (나)는 ‘~고향의 소녀와 / ~고향의 소년과’, ‘~피듯 ~타듯 ~날듯 ~흐르듯’, ‘~이 있다’ 등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여 음악성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모두 자연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06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자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화자의 공간(시선) 이동을 중심으로 할 때, 화자는 낮고 좁으며 속세와 가까운 공간인 ‘㉔ 수간모옥’에서 시냇가를 지나, 높고 넓으며 속세와 거리가 먼 공간인 ‘㉔ 봉두’로 이동한다. 이러한 공간 이동은 화자의 탈속적 흥취를 고조시키며, 세속적 가치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4점
㉔, ㉔에 해당하는 공간을 바르게 쓴 경우(각 1점) 또는 ㉔로 이동한 화자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07 <보기>는 고려 유신인 이색이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드러낸 시조이다. 여기서 ‘백설’은 고려의 유신, ‘구름’은 조선 건국의 주체가 되는 신흥 세력, ‘매화’는 고려의 국운을 되살릴 우국지사(憂國之士), ‘석양’은 쇠망하는 고려의 국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의 ‘석양리(석양)’는 시적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지만, <보기>의 ‘석양’은 시적 상황(고려의 쇠망)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봄날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즐거움이, <보기>는 국운이 쇠퇴해서 점점 기울어져 가는 왕조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

타난다.

- ② (가)에서 화자는 봉우리에 올라 구름 속에 앉아서 천촌만락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있으므로 '구름'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보기>에서 구름이 골짜기에 험하게 끼었다는 것은 고려 말의 신흥 세력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어지러운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구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 ③ (가)와 <보기> 모두 4음보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는 '도화', '행화' 등을 통해, <보기>는 '백설이 즈자진 골', '매화' 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08 ㉔은 인간과 관련이 있고 ㉕, ㉖은 자연과 관련 있는 시구이다. ㉗ '천연히'는 자연과 인간이 '천연하다'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㉗ '고향'은 '들길'과 '마을'을 비롯한 여러 정경에 회상적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 ② ㉕ '같이'를 '~처럼'으로 해석하는 경우 ㉘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은 '소녀', '소년'과 ㉗ '들길'을 모두 수식하는 한편, '~함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㉙이 ㉚만 수식하는 속성이 된다.
- ③ 해석에 따라 ㉗ '그 길에'와 ㉕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 듯'이 연결될 수도 있고, ㉗ '그 길에'와 ㉘ '마을이 있다'가 연결될 수도 있다.
- ⑤ ㉘ '마을'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모습 등 다양한 이미지로 반복되면서 ㉗ '천연히'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09 (나)에서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고향 마을의 꾸밈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자연 중심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갈비 한 대 먹고지고.”는 이몽룡이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한 말로,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 즉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나타난 언어유희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인물들의 대화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암행어사 출도야.”/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어.’에서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에서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함으로써 마패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탁’, ‘수군수군’, ‘우글우글’, ‘번쩍’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11 ㉔는 편집자적 논평, ㉕는 확장적 문체에 관한 설명이다. ㉗에 해당하는 것은 ㉙, ㉚에 해당하는 것은 ㉘이다.

12 **출제 의도 및 해설** 제시된 부분에 나타난 언어유희의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에서는 사람의 ‘갈비(뼈)’와 고기의 ‘갈비’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는 조선 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인 ‘양반’을 ‘개갈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를 쓰는 ‘양반’이라고 하여,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값싸게 깔고 앉을 수 있고 불품없는 것으로 놀리어 웃음을 유발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서술한 경우	5점
[A]와 <보기>에 사용된 언어유희의 종류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A]는 ‘갈비’, <보기>는 ‘양반’이라는 언어유희의 예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13 [B]는 이몽룡이 지은 한시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탐관오리의 학정을 비판하고,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지만 올바른 정치에 대한 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수령들의 잔치에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비판하는 한시가 등장하면서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③, ④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⑤ 탐관오리의 향락은 ‘술’과 ‘안주’, ‘춧불 눈물(춧눈)’, ‘노랫소리’로 비유하고, 민중의 고통은 ‘백성의 피’와 ‘백성의 기름’, ‘백성 눈물’, ‘원망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14 어사또가 이몽룡인 것이 드러나면서 작품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③ 춘향이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어 행복한 일생을 보낸다는 결말 구조로 마무리된다.
- ④ ‘춘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사또(이몽룡)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 ⑤ 초현실적인 사건 전개나 전기적(傳奇的)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춘향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은 기존의 유교 질서를 옹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서민층이 아니라 양반층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명관’은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를 의미한다. ㉠은 본관 사또와 마찬가지로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는 ‘수절’과 ‘정절’의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내력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당한 고초 등을 엿볼 수 있다.
- ③ ‘충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춘향의 절개를, ‘바람’, ‘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춘향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기율이 들’었다는 것은 본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의미하며, ‘이화 춘풍(오얏꽃이 피는 봄바람)’은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을 의미하므로, ㉡은 본관 사또의 학정으로 죽을 처지에 놓였던 춘향이 암행어사 출도로 다시 살아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기생 신분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의 결합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둘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17 (출제 의도 및 해설) 대상에 대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어사 출도로 당황한 수령들이 허둥거리며 도망치는 모습과 본관 사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단어를 뒤바꾸어 말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을 서술한 경우	5점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문장 형태가 바르지 않은 경우	3점

18 이 글은 21세기 들어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9 (가)에서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다. 산업 현장 로봇이나 재난 구조 로봇은 이러한 인공 지능 로봇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산업 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를 열었고, 제1의 기계 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는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② ‘제1의 기계 시대’에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마저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적 업무가 육체노동 업무보다 고임금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기계 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였으므로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이 등장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고 하였으므로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0 <보기>는 이메일이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손 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으며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계와 로봇,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 등이 발달하더라도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는 기계나 로봇의 편리함보다 손 편지를 통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보기>는 이메일의 편리함 외의 손 편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에서는 신기술의 개발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기계나 컴퓨터가 인간의 영역을 모두 대체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육체노동 해방과 관련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1 <보기>는 마부가 사라지면서 마부를 대신하여 운전수라는 직업이 새롭게 나타나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거나, 노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개인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경제학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는 <보기>와 비슷한 관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④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기>에서는 마부를 대신하여 운전수라는 직업이 새롭게 나타난 것에만 주목하였으므로, <보기>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2 (나)에서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에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다.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적당한 노동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 ①, ②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 ③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⑤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에 필수적 요소'이며 '유산이나 기본 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23 (다)에서는 로봇 시대에 발생할 일자리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적 태도에만 주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적 태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글쓴이는 (나)에서 '사람들이 일은 덜 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로봇 문명의 낙관적 전망을 먼저 제시하고,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나)를 살펴보았을 때, 문맥의 흐름상 (다)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글쓴이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를 부정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문명에 대응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4 (출제 의도)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글쓴이와 '㉠ 로봇 문명을 낙관하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인지하는 문제 상황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런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점의 차이를 서술한 경우	5점
글쓴이와 ㉠의 관점의 차이만 서술한 경우	3점
글쓴이와 ㉠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문제 상황만 서술한 경우	2점

25 ㉠은 운동주가 문학 수업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의 사례로 백석의 시집 《사슴》을 손수 베껴 필사본을 만들어 가졌던 일화이다. 이는 한정판이었던 시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도서관에서 직접 베껴 필사본을 만든 것으로 문학에 대한 운동주의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음을 보여 준다.

26 (출제 의도) 글의 내용과 <보기>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문학 관계 서적을 사 모으고, 시집을 손수 베껴 필사본을 만드는 등 독서 활동 자체를 즐기고 연계된 책을 읽는 모습에서 운동주의 독서 유발 상황이 '자발적 동기의 연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운동주의 독서 태도를 바르게 서술했으나, 동기 유발 상황 요인을 잘못 고른 경우	3점
동기 유발 상황 요인을 바르게 골랐으나, 그 근거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유사 정답) 운동주가 새벽까지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였다는 점이나, 문학과 관련된 책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용을 뒷받침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7 (다)에서는 공정 여행의 개념과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나, 공정 여행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28 '신문'이라는 매체가 공적이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결 표현을 좀 더 정중하게 보이도록 수정해야 한다. ㉠에는 '않는다.'를 쓰는 것이 좀 더 정중해 보이고 글의 종결 표현을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공정 여행'이란 제목이 너무 단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정 여행의 취지를 살린 수식어를 추가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 여행'으로 제목을 조정하고 있다.
- ② 글의 흐름을 고려해 공정 여행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배경을

도입부에 배치하고, 공정 여행의 의의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 ③ 공정 여행의 실천 방법 가운데 '쾌적한 숙박 시설과 오락 시설의 확충 등'이라는 내용은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있다.
- ⑤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이라는 접속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을 보완하고 있다.

29 (다)에서는 공정 여행 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를 확대 해석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가나,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공정 여행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는 여행을 말한다.
- ②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 여행을 통해 여행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서 주변 환경을 여유롭게 만끽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 ③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 시설이나 민박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 ⑤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30 **출제 의도 및 해설**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글을 올바르게 고쳐 쓸 수 있고,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조건>에 맞추어 (다)의 끝에는 '우리 함께 떠나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 여행을.'과 같은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우리 함께 떠나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공정 여행을 권유하는 말을 사용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과 같이 공정 여행의 의의를 밝히며, 도치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가할 문장을 쓴 경우	5점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여 추가할 문장을 쓴 경우	3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여 추가할 문장을 쓴 경우	1점

기말고사 대비 문제 1회

본문 254~263쪽

-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선생님, 수민이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어요(갔습니다).
- 06 ⑤ 07 헤리는 주희에게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자신이) 전교 1등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⑤
- 14 | 예시 답 | 동물의 세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대 기간이 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15 ④
- 16 ④ 17 ③ 18 | 예시 답 | 협상의 목적은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하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19 ⑤ 20 ① 21 | 예시 답 | 시구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22 ② 23 ⑤ 24 ④ 25 | 예시 답 | 불필요한 설비와 농기계 등에 투자하기 위해 자기의 상환 능력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므로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26 ④ 27 ④
- 28 ④ 29 ④ 30 | 예시 답 |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다.

01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배경과 자주·애민·창조·실용의 창제 정신이 나타나 있지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고 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어엿비 너겨'에 세종 대왕의 애민 정신이 나타나 있다.
- ④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뻘한키 후고저 흠 쓰르미니라'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나랏 말싸미 동국에 달야'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우리말과 중국 말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02 방점은 성조(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말소리의 특질.)를 구별하기 위해 글자 왼쪽에 찍어 놓은 점을 말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장단'이 아니라 '성조'가 사라졌으므로 방점을 제외하고 표기해야 한다.

03 '병'은 중세 국어에는 존재하였으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소멸되었고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의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과'로 변하였으므로 현대 국어에는 '중국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배'는 '바'에 주격 조사 '이'가 합쳐진 것으로, 현대 국어는 '이'가 '가'로 쓰인다.

- ③ ‘·’ 음운은 현대 국어에서 ‘-, ㅍ, ㅌ’ 등으로 변하였으므로, ㉔은 ‘마침내’가 된다.
- ④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 ‘ㅼ’이 현대 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변하여 ‘ㄷ’으로 표기한다.

04 ㉑, ㉒은 각각 특수 어휘 ‘여쭙다’와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선생님’과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습니다’를 활용하고 있다.
- ③ ㉑은 ‘해체’, ㉒은 ‘해요체’이며, 이는 모두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 ⑤ ㉑과 ㉒에는 주어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조사 ‘께서’가 쓰이고 있다.

05 **출제 의도 및 해설**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듣는 이를 ‘선생님’으로 가정할 때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여 ‘갔어.’를 ‘갔어요.’ 혹은 ‘갔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또한 ‘할아버지’ 역시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여 ‘데리러’를 ‘모시러’로 고쳐야 한다.

06 ‘읽혀졌다’는 피동 접사가 붙은 피동사 ‘읽히다’에서 다시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읽혀졌다’가 아닌 ‘읽혔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바꾸었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인 ‘바뀌었다’가 되었다.
- ② ‘쫓다’에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인 ‘쫓기다’가 되었다.
- ③ 명사 ‘파괴’에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인 ‘파괴되다’가 되었다.
- ④ ‘만들었다’에 ‘-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인 ‘만들어졌다’가 되었다.

07 **출제 의도 및 해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조사 ‘라고’를 조사 ‘고’로 바꾸어야 하며, 말하는 사람 본인을 지칭한 1인칭 대명사 ‘나’를 인용하는 사람에 맞추어 ‘자신’ 또는 ‘자기’와 같은 3인칭 대명사로 바꾸어야 한다.

08 다영이가 엄마를 많이 닮은 일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㉔의 쓰임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⑤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미리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하고 있다.

09 ㉔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명백한 사건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① ‘정은이랑 연극 보러 간다.’라고 한 말을 조사 ‘고’를 써서 간접 인용하고 있다.
- ② ‘연극이 곧 시작할 것이라고’에서 ‘-ㄹ 것이-’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③ ‘시작되다’는 명사 ‘시작’에 접사 ‘-되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 ④ ‘상했겠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추측의 의미를 지닌다.

10 <보기>에서 한국어는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순위가 세계 12위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1 반대 측 토론자는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며,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물실험감독위원회가 동물 실험의 계획서를 심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지 감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에 해당한다.
- ③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 ④ 동물 실험은 다른 실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 ⑤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한다.

12 <보기>는 동물 실험의 문제를 해결할 대체 방안이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이 나타나 있다.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은 없다는 내용 뒤(ㄷ)에 대체 실험은 동물 실험처럼 정확할 수 없다는 <보기>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㉔은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㉔과 같은 이유

로 동물 실험이 정확성과 신속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오답 풀이

- 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에 동물 실험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다.
- ④ 동물 실험의 대체 방법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어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4 **출제 의도 및 해설** 교차 신문을 할 때 반대 측의 주장에서 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A]에 나타나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인 세대 시간, 정확성, 신속성 등에 반박하는 내용을 서술해야 하며, 발언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질문을 작성한 경우	4점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을 바르게 썼으나, 토론 시의 올바른 태도를 지키지 못한 경우	3점

유사 정답 반대 측에서 동물이 사람보다 세대 기간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대 기간이 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관찰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또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물 실험 금지 반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질문할 수 있다.

15 (가)는 협상의 절차 중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작 단계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②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은 조정 단계 전인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해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문제를 확인한 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⑤ (가)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인 시작 단계인 것은 맞

나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과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6 협상은 상대방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담화 유형으로, (나)는 협상의 과정 중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인 조정 단계이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적인 태도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7 문화시가 축제의 내용을 행복시와 다르게 한다고 하였지, 축제 개최 시기를 변경한다고 합의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④ 행복시의 요구를 문화시가 수용한 내용이다.
- ②, ⑤ 문화시의 요구를 행복시가 수용한 내용이다.

18 **출제 의도 및 해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협상 사례를 통해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에서 행복시와 문화시는 축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으나,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므로,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협상의 목적을 서술한 경우	4점
협상의 목적 두 가지를 서술하였으나, (다)의 핵심 구절인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갈등을 해결할'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3점
협상의 목적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19 이 시의 화자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민족의 비극적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독백적 어조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태초부터 미래까지 유구한 시간적 배경과 광활한 광야의 공간적 배경이 조화를 이루어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③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2연의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오해 휘달릴 때'에서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20 ㉠의 '지금 눈 나리고'에는 우리 민족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으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의 화자는 '이제 올 / 너그러운 봄'을 통해 바라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는데, 이는 현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봄

은 통일, 통일의 시대를 상징한다.

오답 풀이

- ② '지조(志操) 높은 개는 /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에서 '어둠'은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을 의미한다.
- ③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에서 '밤'은 부정적 현실(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 ④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는 구절에서 부정적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이 구절은 해방이 되었지만 완전한 독립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을 의미한다.
- ⑤ '앞뒤로 땀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에서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이 나타나 있다.

21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인의 삶을 고려하여 시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구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4점
'자기희생적 태도', '현실 극복 의지' 등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시구를 인용하지 않은 경우	2점

22 <보기>의 '흰 돛 단 배'는 '내가 바라는 손님'인 민족의 구원자가 타고 오는 것으로, 평화로운 미래의 희망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매화 향기'는 도래할 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현실 극복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 ③ 이 시의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보기>의 '내 고향'도 우리 민족이 살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초인'과 '손님'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으로 화자의 이상을 실현해 줄 존재이다.
- ⑤ 두 시의 화자는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노래의 씨를 뿌리는 행위, 은쟁반과 모시 수건을 준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23 (라)의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 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를 통해 황만근의 경운기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라)의 마지막 부분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황만근의 실종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

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하는 등 그의 진가를 알지 못했음이 나타난다.

- ③ (마)의 마지막 부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南海人) 민순정(閔順鼎)이 엮디어 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이 소설은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함께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다. (다)에서는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는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의 괄호 안의 말들은 황만근의 말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황만근의 말 중 대표적인 것들을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직접 제시되고, 나머지는 민 씨의 기억과 해석을 바탕으로 괄호 안에 요약·정리하여 제시되고 있다.
- ② (다)는 황만근이 사라지기 전날 밤, 황만근이 민 씨에게 농사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부분으로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 ③ (다)의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는 황만근의 말에는 전통적인 농업, 소자본, 노동 집약적 농업을 지지하고, 농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황만근의 소신이 나타나 있다.

25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에 드러난 당시의 시대적 문제인 '농가 부채'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황만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농가 부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황만근은 농업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과 자금 대출 정책을 비판하며 농사꾼은 빛을 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이야기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4점
농가 부채에 대한 황만근의 소신은 서술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2점

26 황만근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깨달아 조롱과 모욕의 차가운 눈길, 낯선 말들을 반성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그의 삶은 하대와 조롱과 모욕의 차가운 눈길 ~ 외로운

것이였다.’와 (나)의 ‘누구도 적극적으로 ~ 바보라고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라)~(마)에서 민 씨가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을 요약하면서 그러한 삶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황만근을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 작가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⑤ (마)에서 민 씨가 황만근을 ‘선생’으로 존칭하며 그의 일생을 총정리하고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다.

27 (가)의 화자는 통시(제주 지역에서 변소와 돼지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공간)가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통시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고양이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고양이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생명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원리가, (나)에서는 도둑고양이에 대한 오해에서 깨달은 점이 나타나 있다.
- ② (가)는 시간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나)는 역순행적 구조가 아니라 순행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돼지를 기른 경험이 없고, (나)의 글쓴이도 고양이를 기른 경험이 없으며, 다만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 ⑤ (가)에는 ‘통시가 아직 남아 ~ 손 내밀어 주는 것’이라며 의인법을 사용하였지만, (나)에는 의인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28 (가)의 통시는 인간의 배변과 돼지의 생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하고 ‘생명이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시의 섭리가 현재 변소에도 이어진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화자는 통시가 생명을 기르는 방이듯, ‘내 몸속의 방’이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몸도 생명을 기르는 방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이라며 친근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 ② ‘통시’에 나타난 생명의 순환성은 곧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제주도의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에 나타난 생명의 순환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⑤ 화자는 ‘통시’에 나타난 자연의 섭리를 문명의 편리성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통시를 변소와 대조하여 생태적 순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9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숨겨진 자아를 찾는 것이지, 어떤 근거를 제시하여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글감을 찾는 질문이다. 글쓰이는 이 질문을 통해 인상 깊었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30 (출제 의도 및 해설)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효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글은 글쓴이가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경험을 쓴 글이므로,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글쓰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며, 성찰의 글쓰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스스로 돌아보고 살필으로써, 잘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4점
㉠을 포함하여 (나)와 같은 글 쓰기의 효용을 서술하였으나, ‘경험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2점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5 | 예시답 | ③은 동사 '먹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⑥는 형용사 '맑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06 ③ 07 ⑤ 08 ⑤ 09 ③
10 ② 11 ③ 12 ④ 13 | 예시답 |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4 ⑤ 15 ③ 16 ②

17 | 예시답 | 행복시는 문화시의 의견을 먼저 수용한 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18 ③

19 | 예시답 | 1~3연은 광야의 과거, 4연은 현재, 5연은 미래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20 ①

21 ② 22 ④ 23 ③ 24 ② 25 | 예시답 | 황만근은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만근산'의 이름을 사용하여 '황만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6 ④ 27 ⑤ 28 ④

29 | 예시답 |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깨닫고,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대상을 판단했던 것을 반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01 (가)에는 지금은 소멸된 글자인 ‘ㅇ, ㅈ, ㅊ, ㅌ’가, (나)에는 ‘ㅌ’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주격 조사 '이', '이'가 사용되었다.
- ② (나)에는 성조를 표시하는 기호인 방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엇디햐야에서 알 수 있듯이 (나)에서 'ㅣ' 모음 앞에서 'ㄷ'이 'ㄸ'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가)에는 '文문字·쫑'에서처럼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쓰여 음가가 없는 받침 'ㅇ'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음가 없는 받침 'ㅇ'을 찾아볼 수 없다.

02 (나)에서 편지글의 대상인 '워늉 아바늉'은 글쓴이의 남편으로 추정되는데, 남편에게 '자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먼저'를 '문져', '나에게'를 '날드려'라고 표현한 것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장 구조나 문법 요소는 현대 국어와 큰 차이가 없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03 '뿌메'는 현대 국어의 '쓰메'에 대응되며, 'ㅃ'이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 'ㅍ'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ㅃ'은 어두 자음군으로 17세기경에 모두 된소리로 변화했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뿌메'는 현대 국어의 '쓰메'에 대응되는 말로, 'ㅃ-'(현대 국어의 '쓰다')에 명사형 어미 '-움'과 조사 '에'가 결합한 말이다. '뽀메'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보아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방점이 하나만 찍혀 있으므로 거성에 해당한다. 거성은 높은 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04 ㄱ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지만, ㄴ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부사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주셨어'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③ ㄱ의 '주셨어'는 '해체', ㄷ의 '갔어요'는 '해요체'로 모두 비격식체에 해당하며, ㄴ의 '드렸습니다'는 '하십시요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종결 어미(-습니다, -어요)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⑤ ㄴ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 ㄷ은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05 (출제 의도 및 해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했을 때 문장 성분의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와 결합했을 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형용사와 결합했을 때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④, ⑥의 시제와 그 까닭을 정확하게 쓴 경우	4점
④와 ⑥의 시제를 정확하게 썼으나 그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2점

06 '가미뉘', '설정뉘', '산입뉘', '처리뉘니다'는 명사 '가미', '설정', '산입'에 접사 '-뉘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⑤ 이 글은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남용한 사례를 통해 외국어나 한자어의 남용이 국어 생활에 끼치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④ 이 글에는 '-라고 하는'을 줄여 쓴 표현인 '라는'을 사용한 직접 인용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7 이 글의 글쓴이는 외국어 및 한자어 남용 실태를 제시하면서,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가 언어 건강을 해친다며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외국어를 순화하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08 '믿겨지지'는 동사 '믿다'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다'에 '-어지다'를 결합

한 ‘믿기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시집을 많이 읽는다.”가 된다. 즉, 피동문의 부사어 ‘사람들에게’가 능동문의 주어 ‘사람들이’가 된다.
- ② ㄱ의 서술어 ‘읽힌다’는 동사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③ ㄴ의 ‘증명되었다’는 명사 ‘증명’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④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피동문의 주어인 ‘그 가설’은 능동문의 목적어로 바뀌어 “과학자가 그 가설을 증명하였다.”가 된다.

09 ㉠은 직접 인용, ㉡는 간접 인용에 해당한다. 간접 인용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전달하므로 말의 내용이 객관화되어 좀 더 격식 있게 느껴진다.

오답 풀이

- ①, ②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④, ⑤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0 이 글은 반대 신문식 토론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교차 신문은 입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반론, 평결로 진행되며, 평결은 배심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의 도입, 폐지, 개선 등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법에 관한 논제를 말한다. 이 토론의 논제인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정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한 논제이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 ④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 찬성 측은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등 주요한 필수 쟁점이 된다.

11 ㉠은 필수 쟁점 가운데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토론의 핵심 용어인 ‘동물 실험’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을 밝힌 부분이다.
- ④ ㉡은 ‘미국 농무부의 보고’를 근거로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은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2 찬성 1 토론자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생

명을 빼앗기도 한다.”라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동물 실험의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고 있다. ㉣는 ‘효과와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과정이므로 인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 ②, ③, ⑤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이 고통을 겪거나 죽기도 하므로 동물 실험은 윤리적이지 않고 잔인하며 동물을 희생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3 **출제 의도 및 해설** 반대 신문식 토론의 토론 방법을 참고하여 상대측의 견해에 적절한 반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찬성 1’은 필수 쟁점 중 ‘문제’와 관련하여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반대 측에서는 동물 실험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필수 쟁점 중 ‘문제’와 관련하여 ‘찬성 1’과 상반된 ‘반대 1’의 주장을 서술한 경우	4점
‘문제’와 관련된 ‘반대 1’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14 (가), (나)는 모두 협상의 조정 단계로, (가)에서는 양측의 처지와 관점을 제시하고, (나)에서는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15 (나)에서 행복시 측은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두 축제가 너무 비슷해질 것을 우려하여 문화시에 ‘폴꽃 축제’의 이름을 바꾸어 축제를 차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행복시는 문화시의 축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문화시의 입장이다.
- ④ 문화시의 축제가 행복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한다.
- ⑤ 문화시의 축제로 인해 갈등이 유발된 상황으로 행복시는 문화시의 축제 운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6 (나)에서 문화시 측은 ‘우리 시는 접근성이 높으므로 일정 수의 관광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시 측이 ‘폴꽃 축제’에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이 높은 접근성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비슷한 소재의 축제를 먼저 개발한 행복시에서 우리에게 축제 운영 정보를 제공해 달라.”를 통해 행복시가 축제를 먼저 개

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⑤ 문화사와 행복시 모두 꽃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꽃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한다는 점이 문화사에 관광객이 물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

17 **출제 의도 및 해설**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전략(태도)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성공적인 협상을 하려면 상대측의 제안을 협조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자기 측에 이익이 될 만한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행복시의 협상 전략을 서술한 경우	4점
[A]에 나타난 행복시의 협상 전략을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	3점

18 (가)와 (나)의 화자는 '나'로 (가)의 화자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에, (나)의 화자는 '내 몸속의 방'에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는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가)는 '광야'에 민족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나)는 '통시'에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는 2, 4, 5연에서 '-라'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는 시 전체에서 '-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9 **출제 의도 및 해설** (가)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과거(1~3연, '까마득한 날')-현재(4연, '지금')-미래(5연, '천고의 뒤') 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시상 전개 방식을 서술한 경우	5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3점

유사 정답 1~3연은 광야의 과거, 4연은 광야의 현재, 5연은 광야의 미래로, 시간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20 '닭 우는 소리'는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장엄한 순간에 시작된 생명의 기적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 ② '지금 눈 나리고'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의미하므로, 항일 투사로 활동했던 시인의 이력을 고려하면 이를 일제에 지배당하고 있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③ '매화 향기'는 화자의 고고한 의지와 강인한 기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는 고독하지만 깨끗하게 일제와 싸우던 시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난한 노래의 씨'는 미래의 결실을 위해 고난 중에도 뿌리는 씨앗으로,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일제로부터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희생적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일제 강점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 줄 지도자로 볼 수 있다.

21 (나)는 '-지요, -군요'와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으며, <보기>는 시적 화자인 '나(흙)'가 '너(뿌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즉 (나)와 <보기> 모두 청자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인간에게서 나온 '음식을 찌꺼기', '설거지물', '똥'이 돼지의 먹이가 되고 '돼지의 배설물'이 보리밭 거름이 되어 인간의 양식이 되는 순환의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보기>는 '흙'이 '뿌리'에게 양분을 주어 이를 길러 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와 <보기>에서 인간을 위한 자연의 희생을 비유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보기>에서는 '흙'과 '뿌리', (나)에서는 '통시'와 같은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고, (나)에서는 '통시'가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준다고 하여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보기>에서는 시적 대상 '뿌리'가 화자인 '흙'에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나)에는 '통시'를 미개하다고 여겨 '변소'로 개량하는 인간의 편의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생명의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나)와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뿌리'와 '흙', '벌레'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22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어 황만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황만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우직하고 성실하며 이타적인 황만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라)에서와 같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가)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 가족들과 그를 위해 밥상을 두 번 차리면서도 자신은 상이 없이 밥을 먹는 황만근의 모습을 대비하여 자기희생적인 황만근의 인품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 마을의 온갖 굶은일을 시키는 마을 사람들과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굶은일을 하는 황만근의 모습을 대비하여 황만근의 이타적인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 황만근과 그의 아들의 대화를 통해 아들의 언짢은 기분과 허물없는 부자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어머니와 아들의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상을 두 번 차리면서도 자신은 상 없이 밥을 먹거나, 생선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논 주변의 붕어나 미꾸라지, 하다못해 메뚜기라도 잡아가는 모습,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태도 등에서 황만근에게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배어 있음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은 가난하여 먹고살기 위해 굶은일을 하기도 했지만 모든 굶은일을 생계를 위해 한 것은 아니다.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마을 일에도 서슴없이 나선 것은 그가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② 황만근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노력해서 여러 일들에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마다하는 일도 앞장서서 맡아 성실히 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에 능숙해진 것이다.
- ④ 동네에 애경사가 생기는 날이면 술에 취해 쓰러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데서 황만근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를 통해 황만근이 폭음을 하는 이유가 술을 좋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라)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해 아내를 떠올린 것이지 아내가 그리워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4 이 글의 글쓴이는 황만근이라는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행적과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분업화·전문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이나 이에 대한 글쓴이의 시각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과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황만근을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이 글의 글쓴이가 그린 황만근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인물은 아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 을 해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인물로는 볼 수 없다.
- ⑤ 아들과 황만근이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권위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 내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위상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황만근의 이름의 유래가 된 '만근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산은 마을에서 늘 우러러보이며 마을에 사철 물을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마을의 온갖 굶은일을 헌신적으로 도맡아 하는 주인공에게 '황만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황만근이 '만근산'처럼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만근산'의 의미나, 황만근의 마을에서의 역할을 인과 관계 없이 각각 서술한 경우	3점
황만근의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 서술한 경우	1점

(유사 정답) 황만근은 이 마을에서 우러러볼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러러보이는 '만근산'의 이름을 사용하여 '황만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6 이 글에서는 황만근이 몸을 제대로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났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황만근은 입맛이 까다로운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밥상을 두 번 차리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가 가족을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황만근이 만든 음식을 맛본 사람이 한 말로, 바보인 줄 알았던 황만근의 음식 솜씨가 뛰어난 데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다. 이는 곧 황만근의 음식 솜씨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 ③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게 굶은일을 서슴없이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데 대한 미안함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라는 말은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황만근을 함부로 대했음을 의미한다.

27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글로, 독자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겠다는 의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소재로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 ② 이 글은 쉽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쉽고 친근하게 글을 접할 수 있게 한다.
- ③ 도둑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 주며 느낀 기쁨, 도둑고양이 가족과 마주쳤을 때의 환희, 어미 고양이가 적의를 드러냈을 때의 놀라움 등 사건과 사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어 묘사되고 있다.
- ④ 도둑고양이의 먹이를 챙겨 주게 된 계기, 먹이를 주던 과정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다가 도둑고양이가 글쓴이에게 적의를 드러낸 사건이 극적 반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28 이 글은 글쓴이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정서적 긴장이 발생하기 전, 정서적 긴장의 최고조, 정서적 긴장이 발생한 후의 성찰로 구성하여 정서적 긴장의 조성파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 표현은 이 글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 글의 정서적 긴장 또한 문장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글의 구성 방식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다.

②, ③, 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성찰함으로써 그간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 태도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자신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반성하거나 자신도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29 (출제 의도 및 해설)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의 효용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고양이에 대해 오해했던 일과 오해를 깨닫는 과정을 서술하고, [A]에서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인간 중심으로 대상을 판단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글쓴이에게 생긴 변화를 서술한 경우	4점
고양이에 대한 오해를 인식한 점이나 인간 중심적 태도를 반성한 점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2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